

# 定慧社

불기 2551년 여름 | 제35호



구름아! 너는 무슨 일로 날마다 산으로 가느냐?  
만일 세상사 번거로움이 싫어서라면 나를 따라 가자꾸나 自性山으로.

송광사 전통강원



조계의 물소리

# 慈 자비 悲

한 돌 한 돌 놓여진 알 수 없는 연민의 승고함  
저 자비의 다리를 건너는 무수한 행인들 속으로  
행여 발자욱 닿을까 머리 숙이는 이 마음...



글(사교 | 본행) 사진(사교 | 덕현)

송광사에는 스님들만의 공간이 여러 곳 있다.

그 중 수석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학인스님들이 사물을 연습하고, 운동을 하는 공간이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조그마한 돌들이 줄을 서 있다. 뭘까. 누가 왜 그렇게 돌을 놓은 것일까.

가만히 몸을 낮추어 살펴보니, 돌담 사이로 조그마한 무언가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아!

바로 이 길은 숲으로 가는 개미들을 위한 길이었던 것이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작은 개미들이 혹여나 스님들의 발에 밟히는 것을 우려하여 놓은 것이리라. 몸보다도 더 큰 먹이를 들고 줄지어 가는 그들도 이 마음을 안다는 듯이 이동을 한다. 누군가가 놓은 이 돌담사이로...



# 定慧社

불기 2551년 여름호 | 통권 제35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정해년 하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 6 교수논단  
止觀명상과 자아초월 심리치료 | 인경
- 13 기획연재 - 송광사 벽화의 세계  
대응보전의 벽화(3)
- 17 지대방 이야기  
발우 | 혜철  
도반 | 범혜  
너희들이 상추맛을 알아! | 종성  
108배와 108번뇌 | 혜원  
습의장소임 | 금조
- 22 정혜탐방  
벽송사 벽송선원 선주禪主 월암月庵 스님
- 29 경전 한 구절  
道를 얻는 길
- 30 목우만평  
오직 마음 뿐 | 상국
- 32 목우단상  
선풍기 | 고산  
사은四恩 | 정안  
효孝 | 서현
- 35 특별기고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의미 | 일귀
- 37 특별취재  
상좌부 불교의 발원지 스리랑카에서 송광사까지
- 41 바람소리 한 자락  
바느질 | 환연  
신통한 새벽목탁 | 향성
- 43 시가 있는 풍경  
동심 | 종안  
빗물 | 자용
- 45 학인단상  
그러지던 삶에서 그리는 삶으로 | 두윤
- 52 화보와 소식
- 55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 56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해강(입승)  
편집장 | 지륜  
편집 | 혜연·설산  
사진 | 혜연

발행일 | 불기 2551년(서기 2007) 8월 27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가획 062) 225-8825



三寶前至心發願  
步步而彌勒下生  
動用運普賢之行  
味味而盡是醍醐  
長處於華藏之海  
爍迦羅心無動轉

念念而釋迦出世  
分別現文殊之心  
門門而皆出甘露  
不出於菩提之林  
舜若多性可銷亡  
靈山會上佛菩薩





삼보전에 지심으로 발원하나니,  
저의 매순간마다 석가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출현케 하리이다.  
걸음걸음마다 미륵세계를 향해 가리이다.  
온갖 분별은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리이다.  
일체 모든 행은 보현보살의 만행을 실천 하리이다.  
드나드는 문에서는 감로의 법문이  
쏟아져 나오게 하리이다.  
맛보는 모든 것들은 최상의 제호맛이 되게 하리이다.  
그리하여 깨달음의 숲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항상 화장세계에 머물러 지이다.  
끝없는 저 허공은 소멸해 없어진다 하여도  
금강같은 저의 마음은 끝끝내 변하지 않으리이다.  
영산회상 불보살이시여, 증명하사이다.

〈편집실〉



방장스님 법어

# 정해년丁亥年 하안거 결제 범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옛그제 초파일을 모두들 성스럽고 거룩하게 보내셨지요.  
이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옛 조사스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未離兜率에 已降王宮하고 未出母胎에 度人已畢이니라.'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났으며,  
마야부인의 태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중생제도를 해 마쳤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이니 이 도리를 깨달아 생사대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도리를 알아내기 위해 9순 시한을 정해놓고 한바탕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안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가자로서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미륵불 열반 때까지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련한 중생이 되려 합니까.  
복혜를 두루 갖춘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인의 기틀을 갖추고 있으니 망상번뇌를 끊어  
생사를 넘어서는 대자유를 반드시 누릴 것으로 믿습니다.  
달마스님이 재물과 여색을 탐하거나 아만심을 지니고서 공부하려고 하는 일은  
허사라고 한 경책을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겠습니까.  
공부와 일이 다르다는 생각을 말고 오로지 시연을 소중히 여겨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바깥에서는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하는 중생들이 많습니다.  
중생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생각, 남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공부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보면 공부를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만을 중히 여기면서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깥이 어려울수록 내 일은 내가 하면서 수행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힘을 보태자는 마음을 내면 공부도 더 잘되는 법입니다.  
한 시간 하는 노력을 삼십분을 더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백용성 스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오늘날에는 그 어른들 같은 투철한 두타행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근기가 있다는 스님일수록 공부를 자처하고 나서면 누가 밥 먹여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 돈이 있어야 스님 노릇하고 절집 지킨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것을 듣습니다.  
집안이 쇠퇴해가는 증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백장스님이 이미 확실한 금도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도리 말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까.  
돌은 허공 중에 높이 솟아있고 불은 물 가운데서 타오르는구나. **定慧社**



# 止觀명상과 자아초월 심리치료

인경印鏡 |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폭류, 떠오르는 망상

## III. 해탈의 길

1. 지금·여기

2. 止觀명상의 원리

## IV. 통합의 길



## I. 머리말

심리학과 불교명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숙과 해탈이다. 성숙이나 해탈은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성숙이 보다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면, 해탈은 종교적이고, 명상적인 초월의 측면을 함축한다. 그러나 문제는 심리적인 성숙이 그대로 곧 해탈을 의미할까 하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동서양의 '심리치료'에 대한 개념과 관점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서구 심리학적 의미에서 심리치료란 어떤 특정한 개인이 그가 속하는 문화 공동체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능, 정서, 행동에 장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혹은 의료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심리치료의 의미를 도道의 성취나 해탈, 말하자면 마음의 청정성에 초점을 맞춘 수행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정신(심리)치료라는 말은 열등한 무엇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여전히 서구적인 의미의 심리(정신)치료는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특별한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나 해당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조금은 모자란 사람의 문제로 치부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권외의 문화이다. 아마도 이점 때문에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서구적 의미의 심리치료의 개념이 일반화되지 못한 문화적인 배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서구적인 정신(심리)치료의 개념에 동양적인 관점을 접목시키려는 중요한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sup>1)</sup> 인간에게는 동양적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인식과 더불어서, 삶의 본질적인 고통

1) 서구 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진 영역은 인간의 행동, 역동심리, 인간중심적 관점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 심리학에서 다루지 못한, 제 4영역으로서 자아초월(Transpersonal)적인 측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동양적 가치에 대한 발견과 수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정성덕·김익창 번역, 1997 『자아초월 정신치료』, 하나의학사)



으로부터 해방, 혹은 해탈을 갈망하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는 성스럽고, 청정한 경험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영역을 전통적인 서구 심리학에서는 종교적 믿음이나 형이상학적 신비주의로 인식하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을 회피해 왔지만, 동서양의 문화적인 교류가 성숙하면서, 이제는 동양적 영역으로 간주해온 것을 서구적 전통의 심리적인 영역안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 정신(심리)치료는 동양적인 가치가 첨가됨으로써, 자아의 영역은 성숙이전의 단계, 성숙단계, 초월의 단계 세 국면으로 분류된다.<sup>2)</sup> 그럼으로써 성숙과 해탈이 상호 배척되거나 몰이해되는 상황은 극복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자아의 초월, 깨달음, 해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은 특별한 경험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서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자각과 함께 누구든지 쉽게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과학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대상이 되었다. 이제 **명상**은 동양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자아를 초월하는 인류의 큰길(Royal Road)이라는<sup>3)</sup> 점이다. 이 점은 아마도 계속적으로 인류가 탐색해야만 하는, 21세기의 매우 긍정적이고,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지난 수세기를 명상과 함께 살아온 우리는 기꺼이 이 큰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먼저 동양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과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결합되고, 통합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탐색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 II. 폭류, 떠오르는 망상

서구 심리학자들이 동양의 명상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명상이 가지는 심리치료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 좌선이란 바로 심리치료적인 과정과 다름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왜냐하면 좌선을 하면서 발생하는 번뇌, 혹은 망상의 문제를 초극하려는 부단한 노력은 결국은 바로 심리치료에서 발생된 문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잠깐이라도 앉아서 명상을 해보면, 의식의 표면에 수많은 영상이 떠오르고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표면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흐름을 이루고, 마침내 폭풍처럼 내적 평화와 지혜를 휩쓸고 간다는 것을 발견한다. 발생하는 상념을 통제하지 못하고, 혹은 의지를 가진 선택이 일어나지 못하고 휩쓸리면, 우리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정상이라고 해도 내적인 이런 폭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폭류를 건널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명상과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공통된 과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붓다는 『Samyutta-Nikaya』 첫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태하게 휩쓸리지도 않고, 애써 저항하지도 않는 채, 나는 폭류를 건넜다네.”<sup>4)</sup>

폭류에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않고, 개울을 건넜다는 붓다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점은 명상을 통해서 체험될 성격의 것이지만, 수행자는 거친 의식의 흐름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망상을 억지로 없애려고도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말로 해석된다. 휩쓸리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고, 이것은 어떤 과학인가? 이것은 전통적으로 **참선, 명상**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폭류를 따라가거나 저항한다.

2) Ken Wilber, 2000, Integral Psychology, Boston and London

3) Roger Walsh, ed. 1993, Paths Beyond Ego, New York

4) PTS, Samyutta-Nikaya I. I. 1(ogham)



그러면서도 허약한 자아 혹은 문화적인 억압에 익숙한 자아는 폭류에 휩쓸릴 위험에 두려움을 느낀다. 방치는 곧 그대로 홍수로 돌변할 것만 같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폭류를 억압하여 무의식 안에 가두어둔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심각한 수압의 긴장을 견딜 수가 없다. 얼마 가지 않아 세워둔 정신의 댐은 무너지고, 결국 휩쓸린 자아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자아는 상처에 대한 반동으로 가짜의 자신을 만들어 세워놓는다. 이는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정신분석은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회적인 습성을 성격, 혹은 학습에 의해서 정도가 완화되는 상태를 발달 혹은 적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명상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는 사회적인 적응과 인간적인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적인 슬픔과 불안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실존의 고통과 외로움이 있다. 우리는 자신에 관하여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일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서, 폭풍에 휩쓸리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폭류를 건널 수가 있는가?

이 방법이 불교적인 의미의 수행, 특히 止觀을 의미한다. 이런 방법이 함축하는 심리학적인 시사점을 찾아내어서, 현실적인 심리치료에 응용하는 길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본다.

### III. 해탈의 길

#### 1. 지금 · 여기

여기에 폭류를 건너는 좋은 실례가 있다. 그는 승려였다. 마을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 노승은 여전히 불편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내적인 평화를 원했다. 그래서 붓다를 만나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로 하였다. 그의 문제는 결코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본질에 관한 문제였다. 붓다는 탁발에서 돌아

오는 길에서 이 노승을 만났다. 죽음이 멀지 않음을 느낀, 노승은 당장에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였다. 붓다는 이 점을 곧 공감하고, 길 위에서 노승에게 말하였다.

“다만 눈으로 볼 때, 보기만 하십시오.

귀로 들을 때는 다만 귀로 듣기만 하십시오.

냄새를 맡을 때는 다만 냄새를 맡기만 하십시오.”<sup>5)</sup>

붓다가 여기까지 말하는 순간에 그 노승은 마음이 열리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로 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졌다. 성숙되고, 어느 정도 자아가 실현된 사회적인 덕망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탈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보면, 붓다의 심리치료는 사회적인 적응에 불편함을 느낀 장애가 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적이고 근원적인 고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심리치료라는 개념은 성숙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더욱 높은 단계의 과정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 심리적인 장애, 형이상학적인 자아에 대한 성숙, 발달, 적응이란 전통적인 서구적 심리치료의 의미는 좀 더 엄격해지고 혹은 폭넓은 개념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가치변화를 의미하는 해방, 해탈, 깨달음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가 첨가되기를 제안해 본다.

노승의 깨달음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자아라는 인식의 주체가 세계의 대상과 하나로 통합되면서 얻어지는 경험이다. 우리의 망상인 폭류는 세계와 인식을 분열시키고, 구별하여, 독립된 개체로 만든다. 그래서 감각기관에 의해서 대상을 볼 때,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불안한 자아는 대상과 세계를 그냥 그대로 두지를 못한다. 양극단에서 폭류에 휩싸이거나 혹은 억압하고 저항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지 못하고, 세계를 자신의 일부, 생생한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오히려 심리

5)Goenka, 1989, Vipassana Meditation, VRI, India



적인 폭류를 바로 자신의 정체성, 곧 자아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세계로부터 은폐되고, 소외된다.

세계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 다만 심리적인 장애물을 세워두고, 저항하여 지킨다거나 험싸인다는 두려움에 물들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조사선을 대표하는 마조는 “도道는 님에 속하지 않는다.”<sup>6)</sup>고 했고, 임제는 “허공에 말뚝을 세우지 말라.”<sup>7)</sup>고 했다. 님은 폭류를 없애려는 심리적인 조작행위이거나, 새로운 형이상학적인 가공물을 건설하는 집단무의식의 의도일지도 모른다. 허공에는 말뚝이 본래 없다. 허공이 걷고, 보고, 말한다. 그래서 그곳엔 어떤 장애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아란 억지로 만들어진 허공의 꽃이다.

## 2. 止觀 명상의 원리

우리의 오랜 습성은 쉽게 쉬지 못한다. 조금만 앉아 있으면, 온갖 잡념이 홍수처럼 밀려나온다. 불교수행의 전통에서 인도에서나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계승되어온 명상의 기법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초기불교의 『염처경念處經』에서는 ‘염念(sati)’이라고 했고,<sup>8)</sup> 중국의 『신회어록』에서는 ‘즉각卽覺’ 혹은 ‘즉견卽見’이라고 했다.<sup>9)</sup> 중국에서 ‘sati’를 ‘念’으로 번역한 것은 ‘sati’가 가지는 어원적인 의미에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인데, 현대학자들은 ‘念’이 분별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팔리어의 ‘Sati’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수동적 주의집

중’<sup>10)</sup>, ‘마음챙김’<sup>11)</sup>, ‘마음지킴’<sup>12)</sup>, ‘알아챔’<sup>13)</sup>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어느 쪽이든지 ‘Sati’는 심리학적 정의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선택적으로 알아차리고, 그곳에 주의를 집중하는 지각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각(perception)은 감각기관에 의한 인식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혼돈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Sati’는 중국 선종에서 말하는 즉각卽覺, ‘즉각적인 깨달음’이라는 직관(intuition)의 의미가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sup>14)</sup>

직관적인 작용으로서 ‘Sati’는 언어적 개념에 의한 추리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대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시비를 가리는 분별적인 작용의 배제를 의미한다. 붓다가 “볼 때는 다만 바라보기만 하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Sati’ 곧 ‘卽見’을 말한다. 그러므로 ‘Sati’에는 심리적인 분별이나 반응에 대한 중지와 더불어서, 대상과 하나됨의 경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찰의 개념을 함께 포함한다.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번뇌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止’와 그대로 존재를 수용하여 응시하는 觀의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개념적인 분별은 생생한 세계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킨다. 개념적인 분별과 정서적인 반응은 장애이고, 안개이고, 혹은 폭류이다. 세계에 대한 관습적인 분별과 무의식적 반응에 대한 중지를 ‘멈춤(止)’라고 부르고, 멈춤으로서 발생한 하나됨의 통찰경험을 ‘응시(觀)’ 혹은 ‘지혜(慧)’라고 부른다.

6) 『馬祖錄』, 「示衆」· 2 (서울: 長經閣, p.25)

7) 『臨濟錄』, 「上堂」· 1 (서울: 長經閣, p.30)

8) Majjhima-Nikaya I, 55-63; 『中阿含經』24(『大正藏』1, p.582中)

9) 楊曾文編, 1996, 『神會和尚禪話錄』, p.13, p39

10) 조준호, 2001, 「위빠사나의 인식론적 근거」, 『보조사상』 제16집

11) 김재성, 2002, 「念處經에 나타난 수행법」,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제1집

12) 임승택, 2001, 『초기불교의 경전에 나타난 사마타와 위빠사나』, 『인도철학』11집: 「사띠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고찰」, 『보조사상』 제16집: 2002 「마음지킴의 차제적 성격에 관한 일고찰」,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제1집

13) 인경, 2001, 『초기불교에서의 지관과 사선』, 『보조사상』 제16집

14)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 추론이나 언어적인 분별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적인 인식으로서, 감각적인 지각(perception)과 수행자의 직관(intuition)을 구별한 것은 Dignaga나 Gharmakirti의 佛敎論理學(派)에서 이루어졌다. (Stcherbatsky, 1962, Buddhist Logic I·II, New ㅅ가, Dover Publication) 그러나 초기불교에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Sati는 감각적인 지각과 수행자의 통찰을 의미하는 직관의 의미를 함께 가진 개념으로 파악된다.



Sati<sup>15)</sup>, 혹은 卽見은 바로 止觀의 기초적인 형태로 폭류와 자아를 동일시하는 업業의 습성을 해체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것이 불교명상의 출발점이고, 자아초월 심리학의 근거이다.

대상관계에서 止와 觀은 각각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止는 대상에 대한 집중에 의한 흔들림이 없는 평정을 말한다. 대상에 대한 집중이란 대상에 접근하여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어떤 번뇌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평정상태라는 결과에 도달함을 말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곧 폭류에 휩쓸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觀은 대상과 하나됨으로써 발생하는데, 그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존재의 본질을 통찰함을 의미한다. 대상을 따라간다고 함은 대상 자체가 가지는 인연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의 無常과 無我를 체득한다는 것이 그 의미이다.

止觀의 의미를 정신 분석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여 보면, 환자들은 과거의 특정한 경험에 고착된 상태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지관의 결여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폭류에 휩쓸리거나 저항하게 된다. 휩쓸림은 평정 곧 止의 결여요, 저항은 고착된 경험에 대한 통찰로서 觀의 결여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관의 개발은 일반적인 번뇌나 심각한 환자의 상태를 치료할 수가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여기서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그는 승려이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그는 눈을 감았다. 지하철역에서, 가슴이 흰히 보이는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올라와서 바로 눈앞의 의자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가슴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챘다. 동시에 눈을 감는 무의식적 순간에 그 욕구가 억압되면서, 미세하지만

강화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 바람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개방하면서, 그 느낌의 변화를 응시하였다. 그러자 그 느낌은 신체의 감각기관으로 퍼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계속하여 주시하면서, 그는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다. 마침내 지하철은 그의 목적지에서 멈추었다.

필자는 이것을 3분 명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에 대한 분석은 정신역동이나 자아초월적 명상의 기법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정신분석적인 의미에서 내적인 욕구와 반응의 역사를 탐색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다.<sup>16)</sup> 대신에 몸, 느낌, 마음, 법 네 형태에 대한 알아춤(Sati)에 의한 止觀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는 욕구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억압하고 저항하지는 않았다. 그는 분석하는 대신에 선 자세에서 그대로 명상을 했다.

여기서 명상을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면, 멈춤[止]이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id, ego, superego라는 인격내의 역동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 억압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어떠한 윤리적인 평가도 하지 않는 채로, 자신을 개방하여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에서 오는 안정, 심리적 고요함이다. 반면에 응시[觀]란 심리적인 변화를 알아채고 바라봄인데, 그것은 '대상과 하나됨'이며 그 결과 발생하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통찰을 의미한다.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 욕구로부터 벗어나 있음, 곧 마음의 청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상의 변화를 알아채는 능력으로서 지혜를 의미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잡초를 붙잡는 일이 멈춤[止]이라면 그것을 낫으로 잘라내는 일은 응시[觀]라고 할 수 있다. 지관止

15) 『염처경』에 의하면, Sati(혹은 卽見)의 대상은 몸, 느낌, 마음, 법 등 네 가지의 심리적인 요소(心所)이다. 몸의 대상으로는 행주좌와와 行住坐臥와 같은 14가지가 있고, 느낌의 대상은 쾌快, 불쾌不快 등의 18가지가 있고, 마음의 대상은 탐욕貪慾, 무욕無慾과 같은 16가지가 있고, 법의 대상에는 오개五蓋나 십이처十二處와 같은 33가지 대상이 있다.

16) 정신분석에 의하면 심리적인 장애는 이전의 어떤 특정 발달단계에서 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심리적인 특정한 부분에 고착되어 가혹한 현실을 만나면,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습성을 가지며 이것이 자아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신경증적인 증세를 야기시킨다.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하, 임흥빈, 흥혜경 옮김, 서울: 열린 책들, 1997) 따라서 정신분석의 중요한 과정은 고착된 과정의 경험을 추적하는 과정이 된다.



觀은 폭류에 휩싸이거나 저항하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명철함이 함께 있는 자아초월의 경험이다. 마침내 그는 잠정적이고, 허구인 구성물에서 '지금·여기' 에로 회귀한 것이다.

#### IV. 통합의 길

조금은 거칠지만, 서구 심리학의 주된 관심은 병리적인 현상의 형성과 생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된 반면에, 동양에서는 심리적인 방해물을 극복하고 초월해 가는 명상과 해탈의 길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sup>17)</sup> 그런데 양자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sup>18)</sup> 학문적으로는 명상과 초월적인 부분을 인간의 심리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여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자아초월 심리학의 공헌이다. 일반적으로 명상과 심리치료의 통합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나는 순서적인 차원에서 심리치료와 명상의 차례로 결합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 대표적인 통합의 형태이다. 심리적인 장애를 분석하고 나서 명상과 같은 높은 차원의 초월의 길을 감행할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점은 명상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심리치료를 전제하는 장점도 있지만, 양자 간의 우열과 경계를 만들어버린 점이 약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는 매우 유용한 관점이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장애가 효과적으로 분석되지 못하면 좌선에서 계속적인 집중상태가 방해받아 진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통합은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명상수행의 방법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명상을 수용한 형태로서, 현대 서구 심리학자들이 가장 널리 인식된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 때 명상은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서구적인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심리치료에 명상이 이용되는 방식은 명상이 심리적인 어떤 사실을 보다 잘 집중(止)하거나 통찰(觀)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세 번째의 통합은 명상수행의 입장에서 서구 심리적인 치료법을 수용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먼저 명상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장애를 심리적인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받고 그것을 명상에 통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명상수행의 기본적인 과정을 통해서 심리치료는 그 의미를 획득한다. 이 경우는 첫 번째와 혼동될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명상이 우선하면서 심리적인 통찰이 수용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장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다 깊은 경우에 적용된 반면에, 이때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일반인이 대상이다. 이들의 방식은 운영자의 배경에 따라서, 그때의 대상에 따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 꼭 하나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를테면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첫 번째의 작업은 '억압된 무의식' 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발견하면 곧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치료적 효과로 간주한다. '억압된 무의식' 이란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망상' 이다. 분명한 통찰을 요청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다룬다면 명상은 쉽게 발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분석적인 작업을 병행하면서 명상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망상에 대한 분석의 과정은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하나는 사마타(止)의 길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개방하고 수용하는 일로서, 주로 감정적인 문제에 효과가 있다. 다른 하나의 길은 통찰(觀)의 길이다. 이것은 대상의

17) Roger Walsh, ed, ibid, p.20

18) 이 주제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는, Erich Fromm, D.T. Suzuki, and Richard De Martino, Zen Buddhism and Psychoanalysis, 1970, Harper Colophon Books가 있다



본질을 통찰하여 그것이 가지는 허구성을 봄으로서 자아를 초월하는 경험을 성취하는 일이다.<sup>19)</sup> 이런 불교의 방식은 정신분석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정신분석은 명상수행을 도와줄 수 있다. 왜냐하면 명상이 현상학적인 작업이라면 정신분석은 심층적인 수행이기 때문이다. 번뇌란 표층적인 의미도 있지만 분석을 요구하는 심층의 뿌리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0)</sup> 그래서 止觀의 명상과 정신분석의 分析作業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억압된 내적인 무의식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그것을 쉽게 알아채고, 자신의 인격 안으로 수용하여 통합하는 명상의 작업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명상에 대한 훈련은 내적인 무의식을 발견하는데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대상을 알

아채고(Sati),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채(止), 그 변화를 조용히 응시하는 명상(觀)은 바로 정신분석적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집착으로부터 떠남은 정신분석과 명상의 공동된 목표이다. 그것은 마음의 정화를 성취하는 **역동현상학**으로서 이해된다. 여기서 '역동'이란 용어는 정신분석의 측면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면, '현상학'은 명상수행의 측면을 가리킨다. 우리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폭류(業)의 형성과 발생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의 오랜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관계를 알아채고,<sup>21)</sup>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신분석은 수행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명상은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서, 충분한 가치와 활용의 길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定慧社**

출처:韓國佛敎學 第33輯

19) 명상은 마음의 평화와 내적인 통찰을 개발하는 실천이다.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마음의 해탈이라고 하고, 지적인 능력이 어떤 장애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정화된 상태를 지혜의 해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고요함은 더욱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하고, 반대로 마음의 깊은 통찰은 더욱 커다란 고요함을 경험하게 한다. 고요함(止)과 통찰(觀)은 별개로 인식되지 않고, 양자는 현상학적인 순환관계에 놓여있다.

20) 마음의 표층과 심층에 대한 구별은 수행에서는 과정, 혹은 단계론을 심리치료에서는 증상의 정도를 상정한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의 고요함이나 통찰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인 해탈을 향한 명상의 여행이다. 심리학에서는 어린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을 성숙 혹은 발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로 떠나는 명상의 여행을 수행이라 하고, 그 여행자를 운수남자雲水衲子라고 불리어왔다. 이런 수행의 과정을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사찰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십우도+牛圖가 그것이다. 이것은 중국 송대에 성립된 것으로 간화선의 수행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牛圖와 관련된 현대 심리학적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이 看話禪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설명이기에 각 단계에서 만나는 긴장과 해탈의 역동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牛圖가 심리치료라는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본다. 초기불교에서도 수행의 과정을 여러 관점에서 설해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욕계(欲界(8天), 색계(色界(17天), 무색계(無色界(4天)라는 삼계三界의 구조 속에서 체계화시킨, 구차제정九次第定이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은 9단계의 고요함을 거쳐서 해탈을 이룬다는 의미가 된다. 마음이 욕계의 상태로 있을 때는 '선禪'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곳에 알아채(Sati)에 의해서 멈춤(止)과 응시(觀)가 확립되면, 비로소 욕계를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초선初禪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색계에는 네 단계의 사선四禪이 있고, 다시 무색계 가운데에는 역시 네 단계의 사무색정四無色定이 있으며, 마지막 단계로는 느낌과 생각이 소멸한 멸수상정減受想定이 있다.

21) 자아란 대상관계이론에서 보면, 대상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구성물이다. 자아란 실재한 것이 결코 아니다. 비록 그것의 적용의 범위가 다르다곤 하지만, 정신분석과 불교의 명상이 가지는 치료적인 공유는 자아의 허구에 대한 통찰이며, 자신을 개방하는 기술이다. (John H. Engler, *Becoming Somebody and Nosody: Psychoanalysis and Buddhism*, Roger Walsh, ed, ibid, p.119) 대상관계이론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서는 이재훈역,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한국심리치료연구소,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by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1983, Harvard University Press) 참고바람.



## 대웅보전大雄寶殿의 벽화(3)

### 布施



### 持戒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부처님께서서는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이 세상 속의 고통을 여릴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번 호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인 육바라밀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실천 수행의 일환으로 벽화를 통해서 보시布施와 지계持戒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대승불교 보살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육바라밀을 여러 경전을 통하여 살펴봄과 각 변화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재미있게 다루고자 하니 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한번쯤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 1. 보시布施

대웅전 왼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보시에 관한 벽화이다. 이 벽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이다. 벽화에는 한 노인이 두 아이를 묶어서 채찍질하며 끌고 가는 모습과 조용히 좌선하며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여기서 수행하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보시태자(벉산타라태자)이며 두 아이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시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제석천이다. 이 벽화는 부자간의 정情마저 억누른 채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실천자'로서 전생의 부처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은 경전인 『본생경』에 나와 있는 관련 설화를 살펴보겠다.

옛날 시비국이라는 나라에 '벉산타라'라는 태자가 있었다. 그는 나이 8세에 "나는 내 자신의 무엇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내 심장을 원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어 주리라. 또 눈을 원하는 이에게는 눈을, 살을 원하는 이에게는 살을 베풀어 주리라"고 서원을 했다. 16세에는 '맛디'라는 여인을 얻어 부인을 삼고 '사리'라는 왕자와 '한하사리'라는 공주를 낳았다.

그때 태자에게는 비를 내리게 하는 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마침 이웃나라 카링가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그 나라의 한 브라만이 태자를 찾아와 흰 코끼리를 달라고 청하였다. "내 몸도 보시할 것이거늘 하물며 내 몸 이외의 것이랴" 하면서 흰 코끼리를 내주게 된다. 그러나 시비국의 많은 백성들은 태자의 행위에 분노를 느껴 그를 쫓아내기 위하여 태자는 그의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히말라야의 깊은 산악지역으로 떠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때 카링가국에는 주파카라 불리우는 브라만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한 사람의 여종을 두고자 했으나 돈이 없어 '벉산타라'의 보시의 마음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날을 걸어 완카산에 이른 브라만은 "저 큰 강물이 언제나 목마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과 같이 태자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 아이를 주시겠지요." 하면서 두 아이들을 자기의 종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태자는 두 아이를 불러 "이 브라만과 함께 산을 내려가 그들의 심부름꾼이 되어다오. 나로 하여금 피안(彼岸)에 이르는 행(行)을 만족하게 하고 나를 위하여 나고 죽는 생사(生死)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되어다오. 아들과 딸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지혜는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백천 억 곱이나 더 훌륭한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내어 주자 브라만은 태자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칠폰(漆)으로 묶어 끌고 가며 심하게 매질을 했다.

아이들의 살갓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태자의 온몸은 떨려지고 큰 슬픔 속에 칼을 들고 쫓아가 브라만을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태자의 지혜는 아이들에 대한 정(情)을 억눌렀다. '고통은 다 애정의 목마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을 없애 버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태자의 보시의 행에 놀란 하늘의 제석천은 또 다시 태자의 뜻을 시험해 보기 위해 스스로 브라만으로 변장하여 그의 아내를 청했다. 태자는 천금 뭉치를 던져 주듯이 조금도 집착 없이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사람의 손에 붓듯이 그의 아내를 내주었다. 『본생경』

보시(布施)란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으로 『금강경』에서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름 없이 보시할지니 소위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문 바 없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곧 공덕을 바라지 않고서 남에게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말한다. 이러한 무주상보시를 행함



은 자신 마음의 탐욕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보시를 행함에 있어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 모두가 청정해야 함을 뜻하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이 이루어져야 함을 『대품반야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삼륜청정의 보시는 곧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나의 마음을 공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한다. 한편 보시를 행하는 방법으로는 법보시法布施, 재보시財布施, 무외시無畏施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법보시란 부처님 법법인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제행무상諸行無常 및 제법무아諸法無我的 이치를 깨닫고서 남을 위해 말할 수 있다면 그러한 보시는 가장 수승하다고 하겠다.

『금강경』에서도 “갠지스강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금강경』의 한 구절을 남을 위해 설한 공덕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남을 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니 스스로 공소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보시하면 만법이 유심소조唯心所造임을 알게 된다고도 하였다.

둘째, 재보시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재보시는 보시의 종류 중에서 근기가 낮은 이들이나 하는 것으로 하찮게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수행은 뒷전이고 재물을 구하는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무시할 것이 되지 못하며 『유마경』에서는 “재물로써 보시를 하더라도 과보를 바라지 않고 자비스런 마음으로 분별을 여윈 채 행한다면 그것은 법보시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무외시無畏施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혹 나는 가난해서 나누어 줄 물건도 돈도 없으며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 법시도 할 수 없어 나는 보시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외시이다. 너도 나도 힘들어 할 때 표정을 밝게 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등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훌륭한 무외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또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는 마음의 여유야말로 진정한 무외시인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한량없는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며 복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 2. 지계持戒

두 번째 벽화는 지계에 관한 벽화이다. 수행자들이 부랑浮囊(가죽주머니)을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배고픈 나찰이 나타나 부랑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찰은 수행자가 타고 있는 부랑을 전부 줄 수 없으면 반 또는 조금이라도 달라고 유혹한다. 여기서 부랑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의미하고 나찰은 마음속의 갖가지 번뇌煩惱를 표현하고 있다. 수행자에게 있어 계를 파괴하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음을, 그리고 나찰의 유혹과 이에 현혹되지 않으려는 수행자의 마음을 잘 그려내고 있는 벽화이다. 부랑이 터지면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이 수행자에게 있어 지계가 중함을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지계持戒의 중요성을 설하신 부분을 살펴해보겠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구명부대를 몸에 달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때 바다 속에 있던 한 나찰이 이 사람에게 구명부대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답하길, '나찰아 내가 차라리 너에게 죽더라도 구명부대는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나찰이 말하길 '만일 그대가 내게 전부 줄 수 없거든 반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주지 않았다. 또 나찰이 말하길 '그대가 반도 줄 수 없거든 삼분의 일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주지 않았다. 또한 나찰이 말하길 '만일 그대가 손바닥만큼도 줄 수 없다면 내가 배고프고 고통이 심하므로 원컨대 마땅히 티끌만큼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또한 그 사람은 말하길 '지금 내가 달라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바다를 건너가려 하는데 앞길이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알지 못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네게 준다면 거기에서 기운이 점점 새어나올 것이므로 큰 바다를 건너기 어려워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계율을 수호하고 지니는 것도 그와 같다. 비유하면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이 구명부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과 같다. 보살이 이렇게 계율을 수호할 때 항상 번뇌라는 여러 악한 나찰이 보살에게 말하길 '그대는 마땅히 나를 믿으라. 속이지 않겠다. 네 가지 중대한 계율을 깨뜨려도 다른 계율을 보호하여 지니면 그 인연으로 그대는 편안하게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반열반경』 제11권 제7성행품 ①

다음으로는 계율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계율은 계戒와 율律의 복합어로서 둘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계(Sila)'는 '명상하다, 봉사하다, 실천하다' 등의 뜻을 가져 습관, 성격, 경향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계의 중요한 의미는 주체성과 자발성에 있다. 자발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한다는 자발적 의지와 결의가 계인 것이지만 단순히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적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율(vinaya)'은 '제거, 훈련, 교도' 등을 의미하며 타율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역에서는 '조복調伏'이라고도 하고 원어를 음역하여 '비나야[毘奈耶]'라고도 쓴다. 계와 달리 율律은 재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출가 수행자에게 해당된다. 이는 공동생활을 위한 행위규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고, 계와 율을 합해서 계율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불교의 계율은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니다. 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동생활의 질서가 필요하게 되어, 그 때마다 하나하나의 계율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한다. 잘못이 발생할 때마다 계율을 제정했다는 뜻이다. 때문에 불교의 계율은 다른 종교의 계명처럼 절대 명령이기보다 상황 윤리적 성격이 강하다.

요약하면 계가 개인적이고 자율적이라면 율은 공동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율이란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계와 율은 상호보완의 의미를 갖는다. 계율은 불교 수행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교단에 수계의식은 있지만 계율의 실천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를 지키다가 죽더라도, 백 년 동안 율을 어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장율사의 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다.

이상과 같은 계율의 의미를 잘 알고 실천함으로써 모든 수행자들은 근본의 정계淨戒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 부처님의 행과 같은 올바른 지계를 통하여 현세의 괴로움을 여의고 생사를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定慧社**



# 발우

혜철惠哲 | 치문



아침부터 아니 어제부터인가,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다.

우산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비를 이슬비라고 하는지 가랑비라고 하는지 아니면 보슬비라고 하는지 그 이름부터 헷갈린다. 오늘은 체육 운력이 있는 날이었는데 비가 와서 취소되고 대신 대망의 마지막 행익 습의인 진지 습의를 받게 되었다.

발우 공양 시의 천수, 진지, 국, 예비밥, 국수 등의 많은 행익들 중에서 진지 행익이 가장 어렵다. 아니 중하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스타는 맨 나중에 나온다.' 는 말처럼 진지 행익은 마지막 행익 습의에 배정된

하이라이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지 행익 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어시 발우를 한 손에 안전하게 잡는 것이다. 어시 발우는 크고 미끄러워서 손아귀에서 잘 빠져나가기 일쑤다. 그도 그럴 것이 왼손으로 감싸서 잡되 엄지손가락이 발우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새끼손가락은 쪽 벌려서 진지 통에 대고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하긴 어렵기는 꼭 발우 잡는 것만은 아니다. 주걱으로 밥을 풀 때는 적당히 굽어모아서 45° 각도로 모아 올려 떠낸 뒤 발우 한가운데 마늘쪽 모양으로 곱게 담아서 상대 스님에게 공손히 드려야 한다. 이 외에도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등 여러 부대 습의 사항 또한 쉽지 않다.

이제 처음 하안거를 맞는 치문반 스님들에게 천수나 국, 예비밥 행익 등이 전부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스님이 되어서 발우 공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어렵고 진지하며 그 의미 또한 깊다. 예로부터 불자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절차에는 꼭 은사스님이 가사장삼과 함께 발우를 물려주셨다고 한다.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나는 발우를 은사스님께 받을 때 당신의 밥그릇을 제자에게 물려주신 깊은 뜻을 제외하고도 나 스스로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깊은 뜻이 담긴 발우 공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떨림이다. 조금 전 사시 공양 때에도 숨을 애써 고르고 행여나 자그마한 소리라도 날 새라 조심조심 가만가만히 한 끼 공양에도 온 정성을 다했다. 등줄기에 맺혔다 흘러내린 진땀이 이를 대변해주는 듯하다.

아직은 어려운 발우 공양이지만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로운 후원공양이 번잡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어른 스님의 말씀처럼 나에게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 기대한다. **定慧社**



# 도반

범혜梵慧 | 치문



도반이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맹구우목盲龜遇木이란 말이 있다. 사람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불법 만나기 또한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 송광사 강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며 24시간을 늘 같이 지내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인연으로 만난 것인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며 출가 수행자로서 평생의 벗이며 동반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도반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혹은 이 소중한 인연을 무색케 할 정도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부대끼며 지내다 보면 간혹 다투는 일도 있

다. 대부분이 아직 속가의 습이 남아 있고 하심 하는 마음이 부족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 같다.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소 미흡한 사람도 있다. 잘하는 사람은 미흡한 사람을 도와주어 이끌어주고 미흡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워가며 그렇게 생활하면 좋으련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 해' 하는 마음을 갖고 도반에게 편견을 주거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량해서 도반을 질타하는 데 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다툼 일도 없고 오해가 생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다.

나는 며칠 전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도반과 다투어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다. 그 일은 누가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로 서로 주장이 오가다 보니 끝내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그날 날씨가 무더워 짜증스럽고 윗반스님들의 엄한 경책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서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여 그만 폭발해 버린 것이다.

평소에는 한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다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 일로 그만 서로의 믿음에 금이 가고 말았다. 물론 그 이후 그 도반은 내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나는 사과는 커녕 아무런 표현도 못하고 심한 자책감에 빠졌다. 그날 저녁 지장전에서 그 일을 참회하며 그 도반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꼭 불도를 이루어 존경받는 스님이 되기를 불보살님께 기도 드렸다. 행자교육원에서 어느 습의사 스님의 말씀이 간절하다.

나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남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기라 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좋을 때는 누구나가 다 좋게 지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도반을 생각해 주고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 화합하고 함께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면 좋겠다. 이제 나는 누가 설령 내 뺨을 후려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 볼 작정이다. **定慧社**



# 너희들이 상추맛을 알아!

종성綜成 | 치문

봄의 기운이 뉘엄뉘엄 초여름을 향할 즈음 사시 공양 특찬으로 상추쌈이 나오는 날이었다. 하늘같은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신 대교반 어느 스님께서 상추쌈을 후원에서 내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상추 맛을 알아! 상추 맛을 제대로 알 때 송광사 전통강원의 진정한 매력을 알거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치문반 때에는 아무리 맛난 특찬이 나와도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아니던가. 돌아서면 배고프고 해우소 한번 다녀오면 오장육부가 비질[空] 앓는가.

지대방에 아무리 다각물이 수미산처럼 쌓여 있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민둥산인 것이 치문반 지대방의 다각물 신세인 것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혈레벌떡 세수하고 비몽사몽간에 대웅전 부처님 전에 허리 숙여 참회의 절을 올리면 땀으로 온몸은 범벅이 되고 악을 써서 금강경을 독경하고 나면 목은 벌써 쉬어버린다. 큰방에서의 위산대원선사경책의 간경 시간이 윗반스님네들의 귀를 떠들썩하게 하고 나서야 뭉은 죽 한 그릇 게 눈 감추듯 날름 먹고 나면 어느새 상강례와 치문 수업 받을 시간이다.

잠시 눈을 돌릴 새라 다시 사시에불의 고역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들을 슬프고 지치게 한다. 벌써 배는 등가 죽에 붙어서 아귀들의 아우성을 듣는 듯하다.

“정구업진언 ... 나무불법승” “석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앙고 시방삼제 ...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아제아제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사시에불을 마치고 나면 허기를 채워줄 발우공양이 큰방에서 기다리고 있다. 서슬 퍼런 선방의 수좌 스님네들, 꼬장꼬장한 율원 스님네들, 사중의 어른 스님네들, 그리고 감히 눈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윗반 스님네들 가운데 앉아서 어찌 맛난 밥과 반찬들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애시당초 분위기에 주눅 들려 두 어깨는 힘이 들어가고 두 눈은 방바닥을 향해 시선 고정하고 이마엔 땀방울인지 빗방울인지 구슬땀이 흠뻑 적시어진다. 사실 상추는 된장에 밥을 싸서 한입에 먹어야 그야말로 별미 아니던가. 고추 한입 베어 물면 그것은 금상첨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아쉽게도 치문반은 상추와 밥을 따로 국밥처럼 먹어야 하는 아픈 현실이다. 밥 먹고 상추는 따로 된장에 찍어서 먹어야 한다. 아무리 맛난 국수가 나와도 한번 받고 나면 먹고 싶어도 수저만 마냥 빨 뿐인 것을...

윗반 스님네들의 느긋함의 여유와 풍성함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찰중스님의 죽비소리가 어찌나 알미운지 모르겠다. 아직도 배는 허기에서 탈출하지 못했건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국수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싶다. 상추에 흰 쌀밥에 된장 얹어서 한입 먹고 고추 베어 먹고 싶다. 멀고도 먼 긴 세월의 터널을 지나서 말이다. 아니 그땐 그저 바라만 보아도 흐뭇하고 기쁠 것이다. 먹지 않아도 말이다. 나 역시 후배스님들에게 너희들이 상추 맛을 아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조계산 시냇물 소리가 청정법신의 음향임을 문득 들을 수 있는 그땐 풋풋하고 어수룩했던 치문반 생활이 그리워지겠지. **定慧社**





# 108배와 108번뇌

혜원慧圓 | 치문



송광사에서 두 해재 맞는 여름이다. 산사의 새벽은 한여름이라 해도 서늘하기 마련이다.

다만, 송광사는 다른 곳에 비해 습도가 높다는 것이다. 근처에 생긴 주암댐의 영향으로 기후가 바뀌었다. 습한 기후가 때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식수가 귀한 때에 댐 하나로 세 개의 도시에 식수 공급을 한다고 하니 산중의 수행자로서 충분히 감내할만한 가치가 있는 듯하다. 아무튼 이런 송광사의 새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칙칙한 새벽'이다. 그만큼 후덥지근하다.

지난 해 행자 생활을 할 때에는 비교적 일하기 쉬운 간편한 복장이라 괜찮았는데, 장삼 만의를 수하고 맞이하는 새벽예불과 108배는 은근히 부담으로 다가온다. 잠이 덜 깬 상태로 까치발로 일어서는 발끝에 자꾸만 밟히는 장삼 끝자락, 하염없이 흘러내려 가는 만의... 간혹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앞사람의 엉덩이를 머리로 받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찰중스님의 죽비에 맞추어 전 대중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108배는 진행된다.

사실 108배는 일반인들도 별 부담 없이 10분 내외에 할 수 있다. 하지만 단 5분의 시간도 쉽게 허용되지 않는 송광사 강원 치문반의 일과에는 작은 것이라고 해도 작은 것이 아닐 때가 종종 있다. 108배를 하는 10분간의 시간 동안에 몇 번이고 지옥과 천당을 오간다. 신심과 원력으로 뭉쳐있다면 천 배, 삼천 배가 많겠는가. 하지만, 순간순간 바뀌는 망념들이 미친 원숭이 날뛰듯 혼잡하여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 와중에도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평온한 천국의 구름 위를 노니는 기분이다. 불행하게도 그 순간은 아주 잠깐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꼭 불행하지만 않은 것은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지만 언젠가 오늘의 이 한 생각 내려놓을 날이 올 것이기에 가슴 뿌듯한 용맹심을 내어본다.

108배를 마치고 나서는 전혀 힘든 기색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웅전을 나선다. 실제로 마음이 평온한가 하면 절대 아니다. 스님들 옆에서 같이 예불을 모시는 불자님들이 행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나의 표정을 보고 "에이~ 스님이 절 몇 번 하고 힘들어하다니!"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가. 아직도 이런 자존심이 남아있다니. 언제 이런 속물이 다 빠질지 모르겠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일체중생 제도하겠다든 욕심[貪]으로  
그 마음 낼 수 없음에 분노[嗔]하며  
그렇게 바보처럼[癡] 정진하자. **定慧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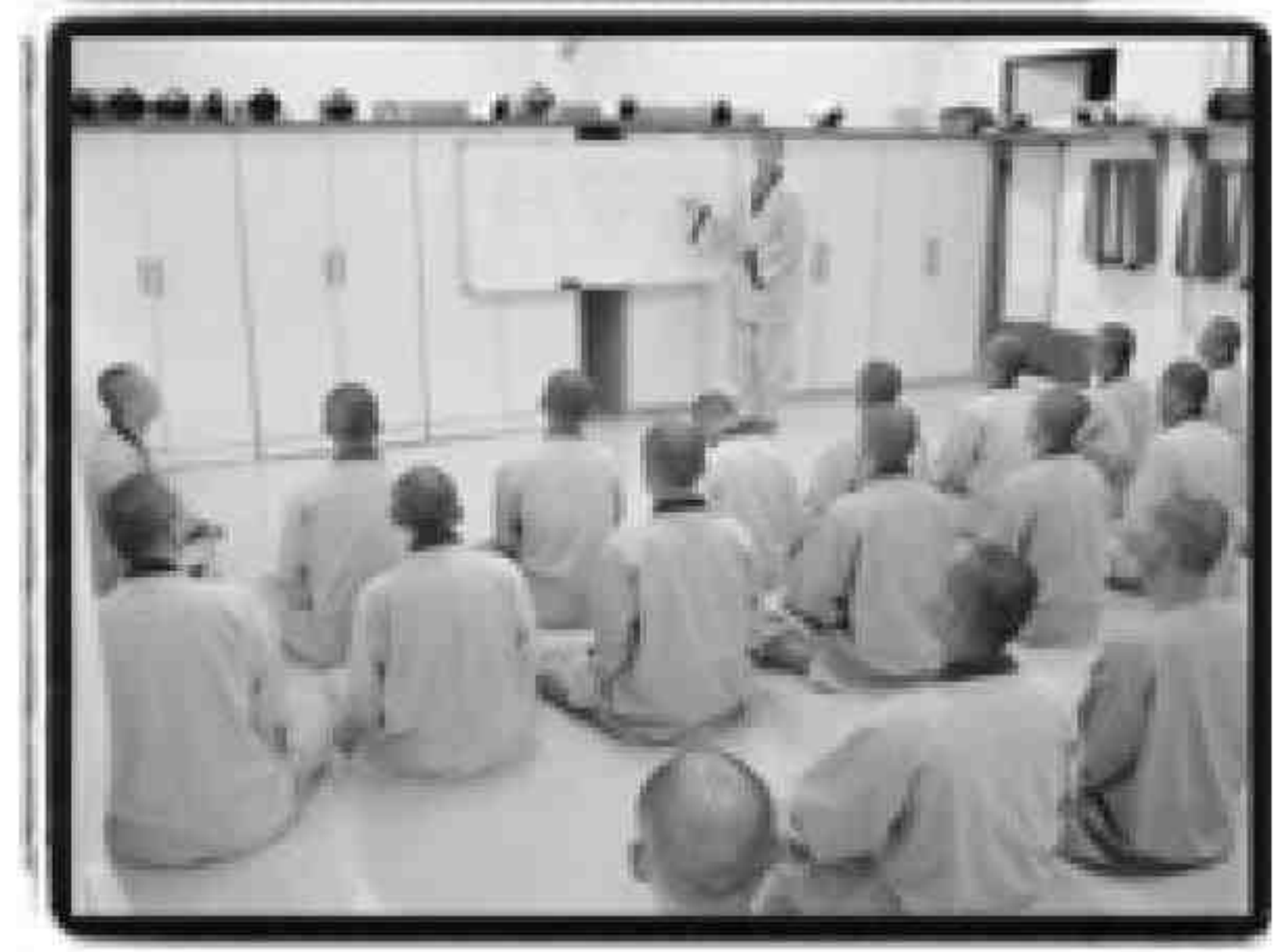


# 습의장 소임

금조今照 | 사집

송광사 강원 치문반 스님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시 공양 이후 이어지는 습의시간이다.

강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문반 스님들이 강원생활에 제반 사항을 잘 알고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이다. 뻑뻑한 일정의 강원생활 중에서 치문반 스님들에게 어찌면 가장 고역스러운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님의 삶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습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송광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발우공양부터 예불, 간경, 운력할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과 흐름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수행자로서, 출가인으로서 그동안 평생을 몸에 익혀온 여러 가지 세속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또한 대중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감에 있어서 원만하고 충돌 없이 대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씩 고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적으로 송광사에 일 년 넘도록 살다보니 이런 습의 속에는 보조스님의 가풍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치문반으로 강원 입방하면 봄산철부터 하안거 반결제까지 발우공양, 행익, 만의장삼 수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절을 중심으로 습의를 받는다. 내가 치문반일 때에도 그랬듯이 지금 치문반 스님들도 이 시간이 꽤나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나씩 버리고 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배워나가는 것이 어디 쉽겠는가. 더욱이 하루 이틀 만들어진 습관이 아니고 평생을 해왔던 것이기에 강원 와서 막상 고치기가 매우 힘이 들 것이다. 더군다나 습의시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윗반 스님들의 따끔한 경책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습의 시간을 더욱 어렵게 느끼게 하는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습의를 전담하는 소임을 습의장이라고 한다.

내가 이번 하안거에 맡은 소임이기도 하다. 사실 처음 습의장 소임을 맡게 되었을 때 무척 걱정을 많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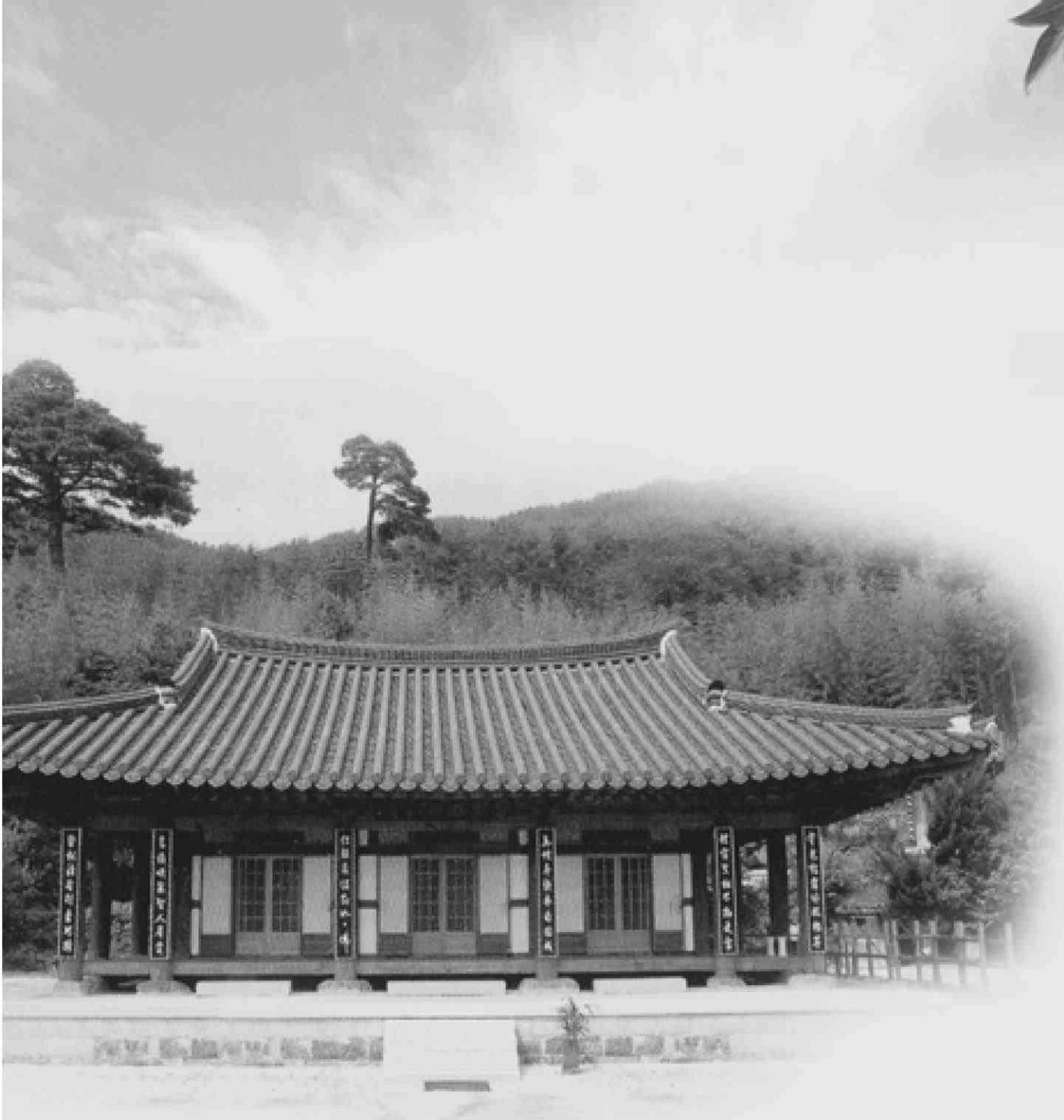
내가 치문반일 때 겪었던 습의장 스님들과 나의 이미지가 잘 대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문반 시절에는 윗반스님의 습의를 잘 따르지도 못했고 또 대중 앞에 나서본 경험이 없었던지라 습의장 소임을 맡고 나서 처음엔 굉장히 고민하였다. 하지만 윗반스님들과 도반스님들이 나에게 큰 공부가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셔서 습의장 소임을 맡게 되었다.

사실 강원에서 나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한다. 그런데 치문반에는 나보다 나이가 갑절이나 많은 스님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스님들을 막상 습의하려니 잘 해낼 수 있을지 나 자신조차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주변 도반 스님들을 비롯해 윗반스님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많이 도와주셨다. 특히 치문반 스님들이 잘 따라와 준 덕택에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지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하안거도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하안거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나의 귀찮은 잔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따라와 주는 치문반 스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정해년 하안거 치문반 스님들과 앞으로 큰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인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定慧社**





월암 月庵 스님  
벽송사 벽송선원 선주 禪主



예로부터 지혜로운 수행자와 신이神異한 도인들이 숨어산다는 지리산 정맥을 따라 아늑한 벽송이 감싸 안은 벽송사를 찾았다. 이곳은 간화경절看話徑截을 종지종풍宗旨宗風으로 하는 활구참선의 수행도량이라고 한다.

선교점수의 간화선풍이 진작되었고 벽송지엄스님부터 환성지안스님까지 조선시대 선불교의 정통 선맥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거쳐 가셨던 한국불교의 종가집이라 칭하는 도량이기도 하다. 잘 정비되어 정갈한 도량 곳곳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끌었던 갖가지 채소와 농작물들이 용성스님의 반농반선 가풍을 떠올리게 함은 무엇 때문일까.

대웅전이 따로 없어 원통전에서 참배하고 내려오다 옛 조사스님들의 심인心印을 가만히 떠올려본다. 선불교에서 옛날 조사가 행화行化했던 곳을 조정朝廷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혜탐방'은 한국의 불교에 있어 조정의 종가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벽송선원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선주 월암스님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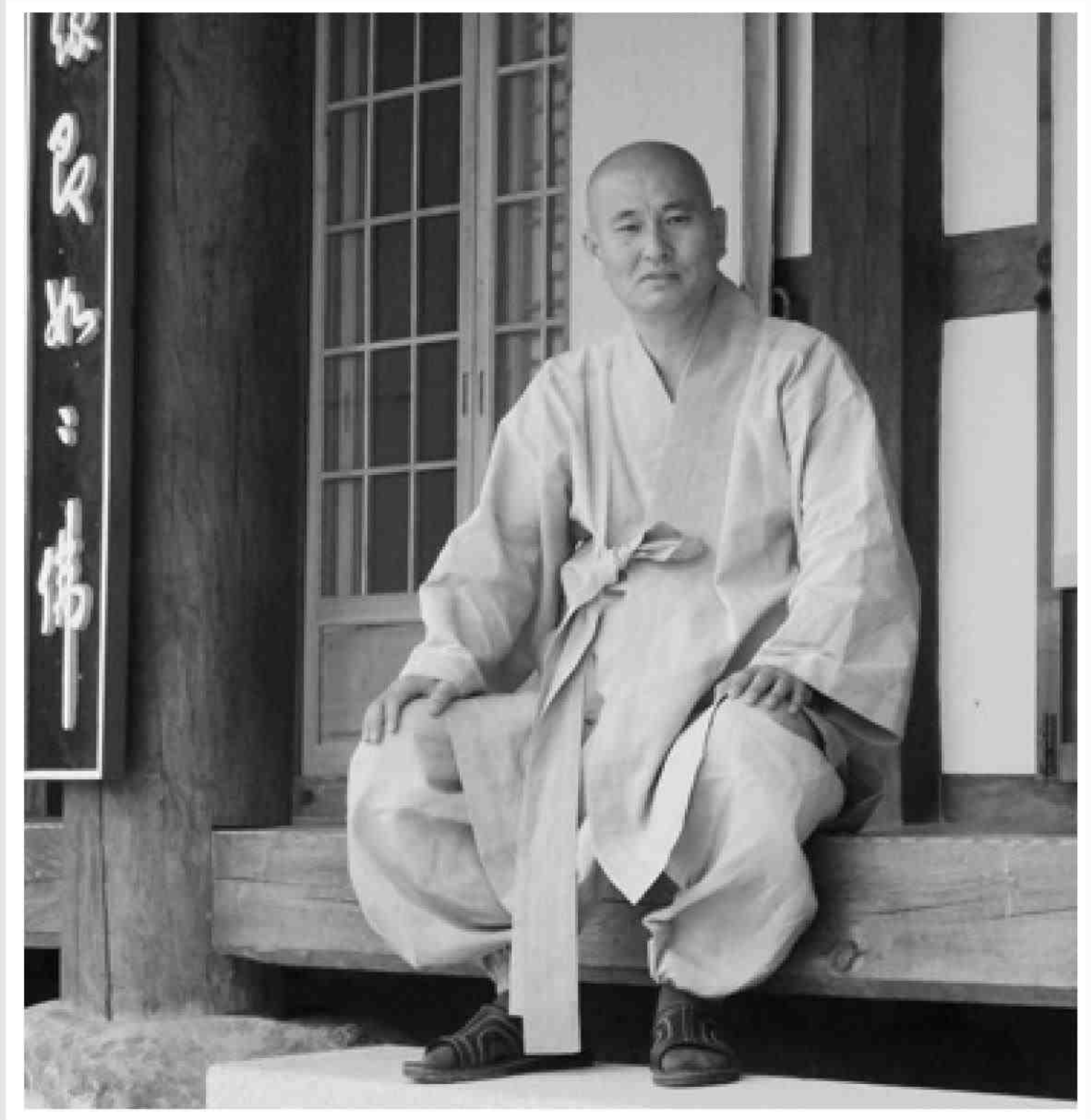
〈편집자 주〉





북경대학으로 10여 년 동안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당시 인상 깊었던 일들을 들려주세요.

하늘이 노래지도록 공부한 기억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나이 많이 먹어서 유학해서인지 그곳의 젊은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았어요.(웃음) 그래서 할 것이 공부 밖에 없었죠. 굳이 이야기 하자면 대학원 과정 때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중국의 선종조정禪宗朝廷을 백군데 이상 참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선지식들을 많이 만나 뵈고 그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선방에서 중국스님들과 같이 정진하며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인데 중국 사람들은 원효, 의상, 보조사님 같은 분들 빼고는 한국불교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 북경불자회인 천진불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라서 불자회 운영에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시로 중국공안에 잡혀갔었어요. 법회를 열려고 하면 독립 운동한다고 하는 의심까지 사기도 했고 중국공안에서 불법집회를 한다고 하며 강제해산하려고 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원래 불법佛法집회인데 말이예요.(웃음)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탐방했고 김좌진 장군이 독립운동을 했던



스님께서 수행하시는데 있어 본보기가 되었던 선지식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옛날 조사스님들의 행적과 공부하신 부분을 살펴보면 선종의 종지宗旨가 견성성불見性成佛 요익중생饒益衆生이죠. 조사 스님들은 이런 선종의 견지에서 근본에 입각하여 아주 치열한 삶을 사시다 가신 분들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은거하시며 인연 따라 중생을 교화하신

청산리 전쟁터에 가서 천도법회도 올렸습니다. 되돌아보면 십여 년 동안 즐기치게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다보니 했던 일이라고는 에피소드를 산출할 만한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선종의 뿌리를 찾고 선종의 사상과 문화에 빠져볼 수 있었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화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을 들자면 근기에 따라 확인을 접인한 마조도일선사 같은 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39명이나 되는 도인스님을 길러내셨죠.

또한 이천 명 가까이 되는 제자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의 삶은 승속을 막론하고 후학을 접인하는 것이 굉장히 모범적이신 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사의 입장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중생회향하려고 하셨던 대혜종고스님과 목숨을 거는 철두철미한 수행을 하시고 중생회향하시는 삶을 사신 감산덕청스님의 삶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불교에서 원효스님에 필적할 만한 분이 없다고 봅니다. 원효스님의 삶의 궤적은 실로 대단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요석공주와 결혼해서 설총을 낳았다는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외적인 부분만 보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부처님 반열이자 성인으로 추앙받은 큰스님이시죠. 또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불교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만중생의 아버지가 되는 육신보살의 삶을 사신 원효스님의 삶의 궤적을 본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의 훌륭한 스님으로는 범부가 흉내 내지 못할

수행력과 중생을 위한 간절한 회향의 마음을 내신 경허스님과 독립운동과 중생교화의 정신에서 본받지 않을 수 없는 수행자의 사표로서 용성스님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절집에 들어와서 삼십 여 년을 살아 회향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런 용성스님과 경허스님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 수행법들이 혼재한 요즘에 저희 초학자들이 수행법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왜 간화선이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치부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 조계종 수행 전통은 간화선 看話禪이고 그것은 바탕이 돈오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방법에 의해서 간화참선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간화선에 대한 지침서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제대로 된 간화선 수행을 한다면 제일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남방수행, 염불선, 위빠사나, 마음수련 등 여타의 수행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수행법도 부처님의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행법이라고 한다면 배척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니까 어느 수행법이라도 자신이 근기에 맞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야 하는데, 그 수행 방법론에 있어서 간화선은 어떤 장점이 있고 위빠사나는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고 차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위빠사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확연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앞으로 접목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화선이 송대 12세기에 나왔습니다. 12세기 이전의 선은 간화선적인 면도 있지



간화선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장점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화선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강력한 신심信心과 발심發心이 되지 않아서 간화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간화선이 아닌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간화선 이전에 있었던 수행법에 대해 예를 들자면 오조홍인 대사는 16관법 중에서 일상관日想觀과 수상관水想觀을 했습니다. 간화선 이전에 행해졌던 수행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간화선이 한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법들이 축적된 상태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초발심자들이 간화선 수행을 바로 접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비적인 수행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하듯이 수식관數息觀, 부파 불교에서 하던 오정심관五停心觀 같은 기초적인 수행법을 비롯하여 위빠사나의 사념처관四念處觀 같은 수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행법은 남방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안마나 스리랑카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발전된 것이 남방수행법이며 결코 외도 수행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

화선 이전의 예비수행법으로 다양한 수행을 채택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행법이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으로써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간화선이 최상승最上乘 수행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뿏꼬' 화두를 보면 화두에 대한 강력한 의심으로부터 수행을 시작하는데, 이 강력한 의심이라는 것이 공부할 때 아뢰아식이라는 수역 천점동안 내려온 업식을 녹이는데 강력한 의정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절문經截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의심이 용광로처럼 펄펄 달아올라서 어떠한 불순물이든 다 녹여버리듯이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제대로 올곧게 화두참선을 하기까지는 이론적인 구축이 있어야 하고 간절한 신심과 원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활구참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끓이듯이 끓어오르는

팔만사천 번뇌에 이끌려 화두를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화두 참선에 맞는 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사무치는 발심發心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화선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장점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화선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강력한 신심信心과 발심發心이 되지 않아서 간화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수행법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살핌과 마음챙김이 그것인데 그것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화두참선보다 수행하는데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화두참선에는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수행법의 장단점이 있으니 수행자들이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 올곧게 수행해서 마음 깨우쳐 중생 회향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는 어느 수행법이든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자화두를 드는 방법은 역대 조사스님이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라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동화사 담선 법회에서 성본스님의 일본학풍과는 조금 다른 각도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적입지를 견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성본스님의 의견과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성본스님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분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몇 가지 관점에서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본스님이 선종사상사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육조혜능스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본스님은 육조혜능스님을 하택신회스님이 만든 인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혜능스님 자체가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은 아닌데 단순한 시골의 노인쯤 되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며 훌륭한 혜능스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택신회스님에 의해서 각색된 인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혜능스님은 신수스님에 필적할만한 위대한 도인스님으로서 남종의 돈오선법을 제창한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그 법을 드러내고 선양한 분이 하택신회스님이지요. 물론 하택신회스님의 육조 현창운동에 의해서 오늘날 육조스님이 빛을 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별 불일 없는 육조스님을 하택신회스님이 각색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숨어있는 위대한 스님을 드러낸 것이죠.

또 육조단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혜능스님의 설법집을 법해스님이라는 제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단경 원본이 있는데 그 고본이 없어지고 고본에 의해 만들어진 필사본이 훗날 하택신회스님이 만든 지금의 최고본最古本이라는 돈황본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하택신회 계통에 의해 윤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훗날 하택종 계통에서 선종의 정통인 홍주종이나 석두종으로 넘어간 뒤에 거기서 나온

책들이 종보본이나 대승사본 이런 육조단경이란 말이죠. 종보본이나 대승사본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단경인 것입니다. 그것은 홍주 계통, 다시 말하면 육조스님에서 하택신회로 법통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남악회양이나 청원행사로 법통이 전수되었고 마조도일스님에서 임제계통으로 내려온 뒤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보본 대승사본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덕이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육조단경이 편찬되는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돈황본이 최고본이고 돈황본 이전에 육조단경이 없었으며 이것이 단지 하택신회스님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하고, 육조혜능은 별 불일 없는 사람인데 하택신회스님이 만든 가상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엄연히 안 맞기 때문에 논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 간화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화두를 의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자화두를 예를 들시다. 무자화두를 드는 방법은 역대조사스님



이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라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성본스님은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서 ‘무無’ 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조주스님이 무라고 했기 때문에. 조주스님이 무라고 했으니까. 무라고 하는 그것으로써 깨달음을 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어느 조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본스님이 창안해낸 일종의 관법 觀法 일지언정 간화선 수행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꼬’ 화두는 화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꼬’ 화두에 의해 깨치신 조사스님들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이렇꼬’ 화두는 화두가 아니라고 하고 화두를 의심하면 우리 본래가 부처인데 부처를 중생으로 만든 것이 되죠. 의혹이 그 자체가 분별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화두에 대한 의심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나는 너를 의심한다는 ‘의심’ 과 화두를 드는 ‘의심’ 과는 다른 의심이죠.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성본스님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화두자체를 의심함으로 인해 오히려 중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

두에 의심과 분별의혹으로써의 의심을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역대조사가 화두에 의정疑精이 없으면 그것은 사구死句라고 하였습니다. 활구活句가 되려면 강력한 의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이렇꼬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의심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 자체를 의심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본스님을 외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혜종고 스님 이후에 도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혜스님 이후 수많은 도인이 나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자신은 모든 수행법을 다 소화해서 어떤 수행법이라도 후학을 지도할 선지식으로서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인가. 그러면 대혜스님 이후에 도인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지도할 능력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간추려 말하면 육조혜능스님이 하택신회에 의해 조작된 인물이라는 의견과 무자화두를 드는 방법론과 ‘이렇꼬’ 화두가 화두가 아니라는 부분과 대혜스님 이후 도인이 하나도 없다는 문제를 의견대립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선종사禪宗史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학자의 아류로서 그러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 벽송선회에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다고 들었는데 시작하게 된 경위와 현 상황과 좋았던 점, 또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선회를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한국의 선방이 백여 개에 이르는데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결제와 해제를 반복하는 똑같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각 사찰의 특색에 맞추어서 선원도 특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벽송사에 나름대로 선교겸수도량이라는 특징에 맞추어 선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선원도 선禪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 염불선, 능엄선, 화엄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각 도량에 특색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선원의 주류는 똑같이 하되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송사는 벽송지엄스님으로부터 환성지안스님까지 이어지는 한국 선맥禪脈의 중심에 있는 선교겸수도량禪教兼修道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벽송선회라는 일종의 담선법회談禪法會의 전통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선회禪會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회를 복원한다는 의미와 함께 선교를 겸수하자는 의미에서 벽송선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약 100





명이 참석했고 아침 네 시간 정진하고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논강하는 방식으로 열흘 동안 진행했는데 나름대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원과 요사채가 보완되면 내년 봄 무렵부터 계속 이 선회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강의를 저 혼자 담당했는데 무엇보다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종단의 어른스님들을 비롯하여 강주, 율주, 선사스님들을 모셔서 폭넓은 교학을 연찬하고 실참실수實參實修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과 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종장들을 모셔서 눈 푸른 납자들에게 폭넓은 선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가에 있는 도올 김용옥, 시인 김지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폭넓은 분야로 선과 교학과 율장을 접목하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핵심 이슈로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후학들에게 보다 더 수행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경책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가한 사람은 다 도반의 입장인데 경책할만한 입장은 안됩니다만 우리 스님 네들이 너무 편리 위주에 빠져서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 편리함만 추구하다보니까 가끔 출가자라는 근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위를 보면 이런 무사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많이 아쉽습니다. 비구라는 것은 달리 일견기를 걸사乞士라고 하는데 희생과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사미이지만 출가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수행과 교화에 있어서 희생과 봉사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구는 서비스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적으로 철두철미한 수행과 밖으로 중생을 향한 마음으로 중생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중생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로 내려가야 됩니다. 허공이 허공일 수 있는 것은

허공이 비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초발심수행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다처럼 가장 낮게 허공처럼 다 비운 자세로 수행하였으면 합니다. 바다가 되는 것은 하심下心이 되고 허공이 되는 것은 공심空心이 되는 것입니다. 방하착放下着이라는 것도 이처럼 모두 비우는 것이 되죠. 공심과 하심으로 살아간다면 조계의 앞날은 후학들로 인해서 밝아질 것입니다.

선과 교의 겸수를 넘어서서 사회와의 접목을 추구하여 간화선이라는 것이 결코 편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신 스님과의 대답에서 '나' 에게만 빠져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간화선의 종지종풍과 선종사의 일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티벳에서는 매일 이루어진다는 담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여행자의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해주는 것 같다. 만약 그러한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 아닌가.

여러 근기에 맞는 각종 수행법이 알려져 있지만 활구참선을 통한 간화선법이 현재까지 가장 수승한 수행법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때 마음가짐을 또한 간과하면 안 된다는 월암스님의 아낌없는 조언을 새겨들어 우리들은 자신의 근기를 잘 살펴 화두 참선하는데 실참실수 할 수 있도록 바른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定慧社**



## 道를 얻는 길

부처님께서 박계수 근처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여덟 가지를 말하리라.  
도道는 욕심을 없애야 얻는 것이지  
욕심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족滿足함을 아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애착愛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끄러운 곳을 벗어남에서 얻는 것이지  
남과 어울려 떠드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지런함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게으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른 생각 정념正念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삿된 생각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정된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산만散漫한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어리석음에서 얻어지지 않는다.  
도는 희론戲論이 아니다.  
그러므로 희론을 멀리 벗어나야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중아함경 제 18:팔념경:〈1-541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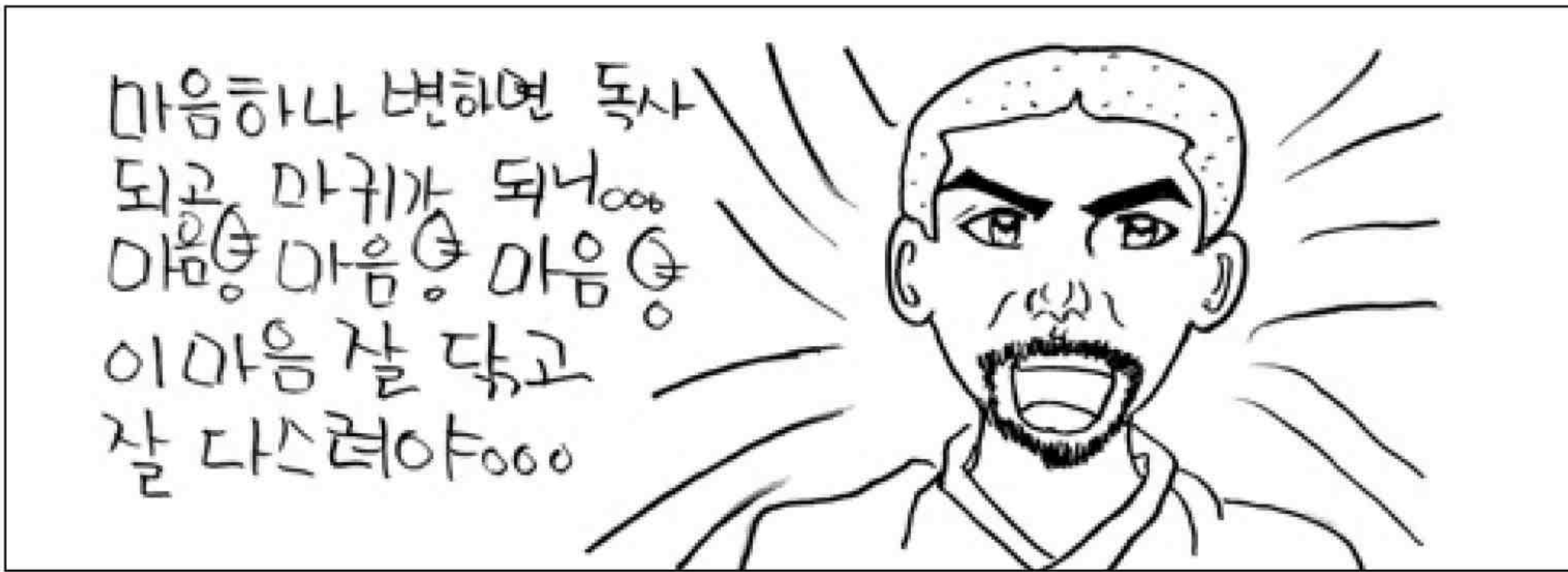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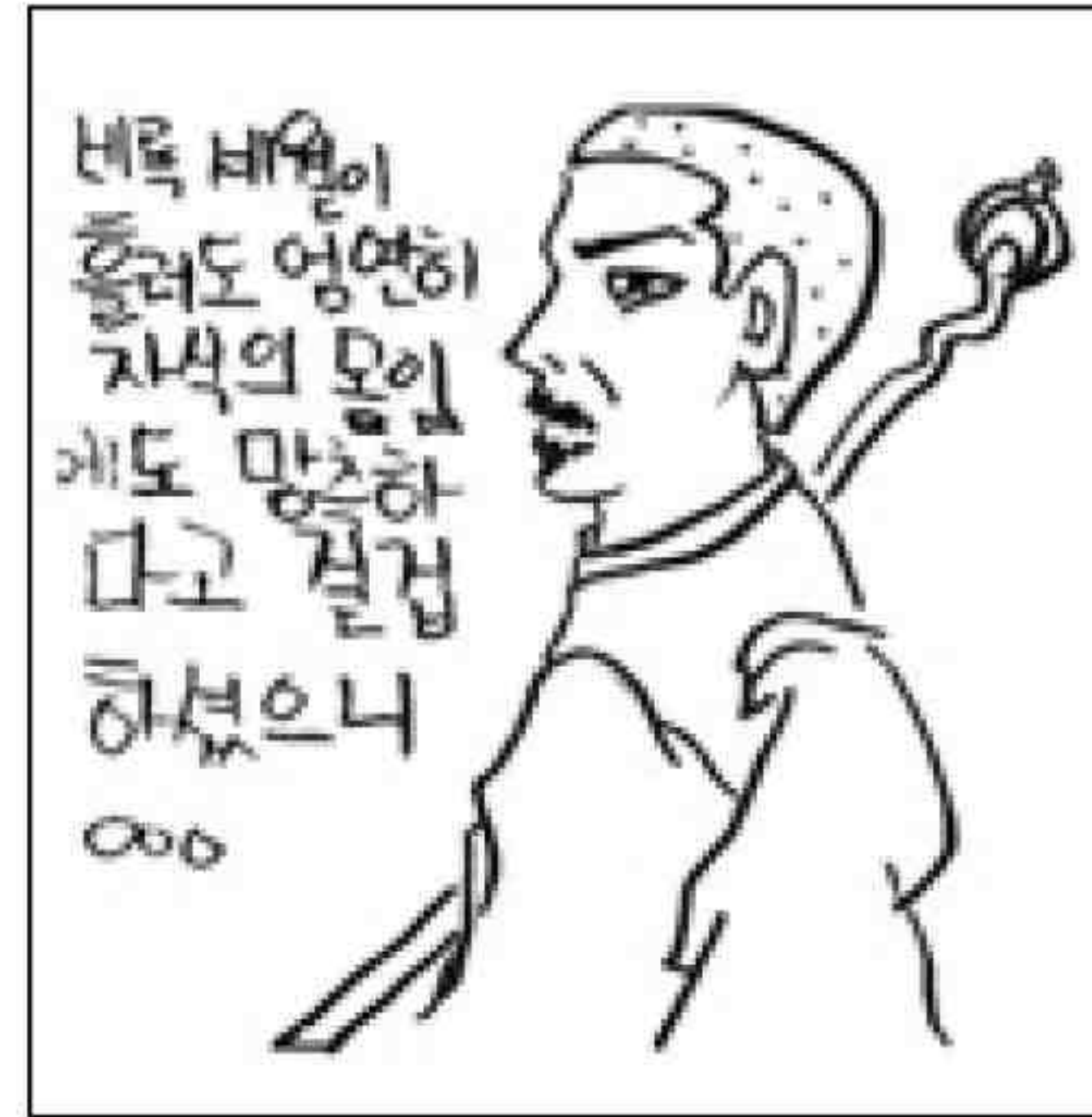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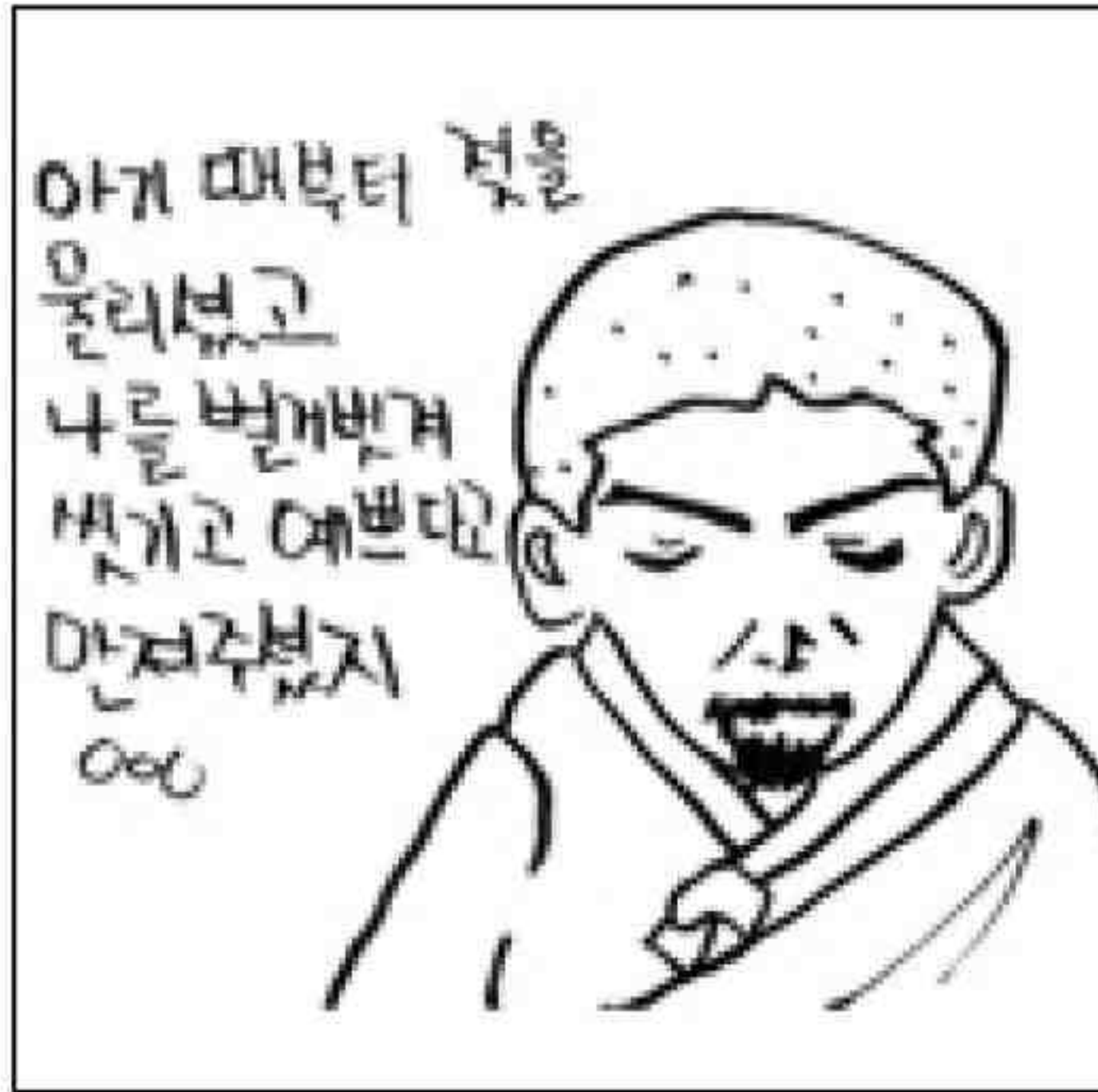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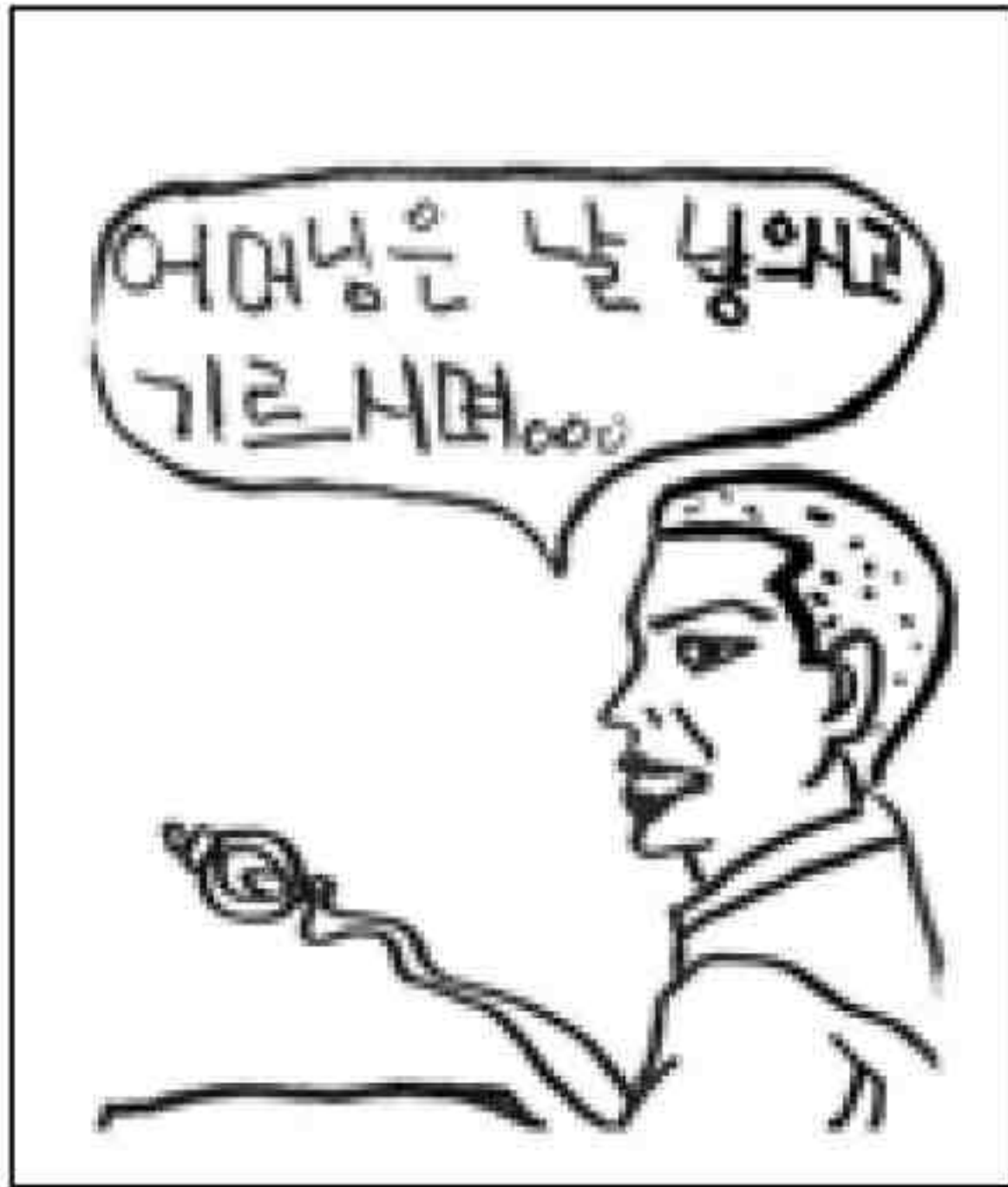


# 오직 마음뿐

글·그림 상국床國 | 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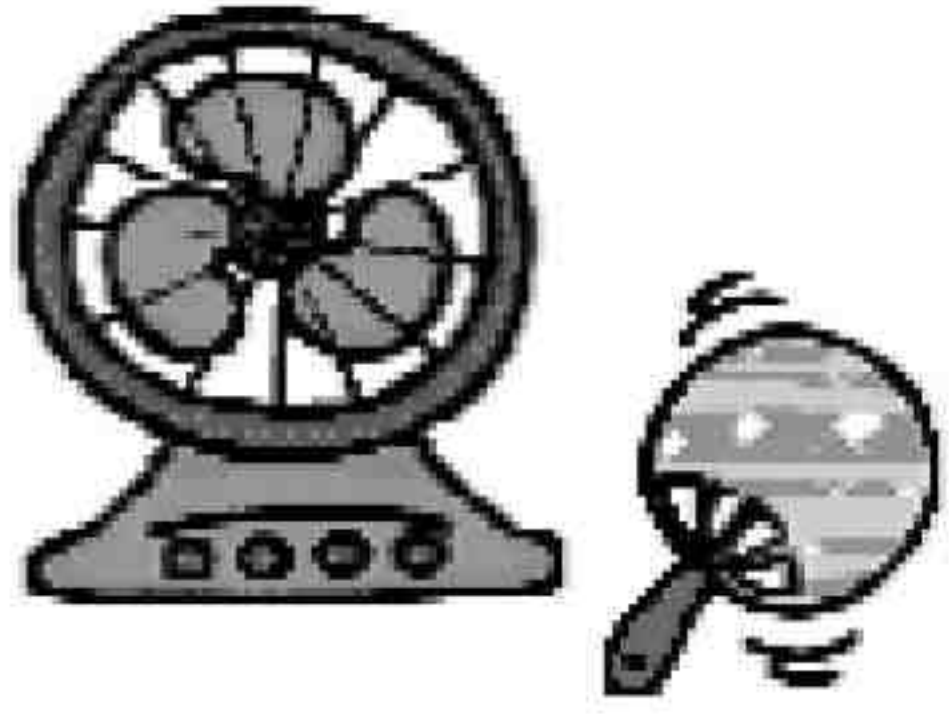






# 선풍기

고산古山 | 사집



송광사의 여름은 무덥기로 소문나 있다. 앞에는 큰 댐이 있어 습하고 지형은 분지라서 바람도 없는 편이다. 여름 한철 보내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이런 무더운 날씨를 부채 하나로 여태껏 보내왔었다. 그런데 올 여름 각 지 대방으로 선풍기가 들어왔다. 부채로만 한 여름을 보내는 것을 벗어나고 사는 분위기에서 아주 신선한 변화이었다.

아직은 정혜사 큰방까지는 아니지만 큰 변화였다. 외부 사람들 눈에는 에어컨도 아닌 선풍기 가지고 그러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채만 쓰다가 선풍기를 사용하여 아주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시대에는 선풍기도 부채만큼 참 구식이다. 그러나 송광사에 들어오면 그렇게 구식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구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송광사에는 될 수 있으면 문명의 이기를 멀리하는 편이다. 지금도 공양간에서는 무쇠 가마솥에 나무 장작을 태워서 공양을 지어먹고 있느니 말이다.

가능한 한 문명의 이기를 잘 쓰지 않고 사는 이 절집의 모습이 참 좋은 것 같다. 경내에는 기지국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핸드폰 사용이 어렵고 스님들 처소에는 TV도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송광사에서 사는 스님들의 멋인 것 같다. 물론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른스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잘 맞추어 살아간다. 아직 다른 절에서는 살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송광사만큼 스님답게 사는 절이 없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사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구식이고 답답하며 불편하다 느껴지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불편하지도 답답하지도 않다. 따지고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 셈이다. 우리가 너무 편안함을 찾으려 하다 보니 게을러져서 이렇게 기계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수행자로서 살리라 하고 이렇게 절집에 들어와 사는 스님들에게 무엇이 맞는 삶의 모습일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름대로 송광사에서 생활하는 방식이나 사교가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선풍기가 들어온 것이 작은 일이 아니듯이 조금씩 변화하는 절집 안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定慧社



# 사은四恩

정안靜安 | 사집

우리는 육도를 마치 우리에게 갇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돌고 또 돈다. 우리가 육도 윤회하면서 다른 어떤 이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은혜恩惠를 베풀어주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해를 당하거나 은혜를 입은 일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입은 해를 아주 잘 기억하면서 '다른 이 들로부터 입은 은혜'는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 바로 지금 계속해서 입고 있으면서도 쉽게 생각하는 은혜를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국가의 은혜니 우리가 한 번 먹고 한 번 먹는 것이 국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국가의 일원이 되어서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한다. 근심 없이 잠자고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국가의 은혜가 막대하다.

둘째는 스승과 어른의 은혜이니 그들은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서 악을 경계하고 세속의 그물에서 벗어나 불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므로 스승의 은혜 또한 중하다.

셋째는 부모의 은혜니 처음 잉태해서 몇 달 동안 잠시라도 마음을 방일치 않고 나아가 출산할 때 고통이 더할 수 없다. 그러나 출산 뒤에 고통을 잊고 귀여워하는 마음을 내어 젖을 먹여 기르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성장하고 나서는 봉양을 포기하고 애정을 끊고 풀어주어 스승을 찾아 출가하여 출세 간법을 닦게 해주시니 아버지의 은혜가 가장 깊다.

넷째는 시주의 은혜니 우리가 출가하여 마음대로 산림에 누워서 받을 갈지 않고 먹고 누에를 치지 않고 옷을 입는 것은 모두 시방 단월들의 은혜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응당 이런 뜻을 잘 알아서 한번 절하고 한번 염불하거나 한줄기 향을 사르거나 등 하나를 밝히거나 꽃 한 송이를 올릴 때, 탑 주위를 쓸고 마당을 청소하는 등 한 가지 작은 선이라도 응당 먼저 4가지에 회향하여 복을 받들어 두루 모두에게 공덕을 입힐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定慧社



## 효孝

서현書現 | 사집

“애야 넌 언제 장가 가니?”

매번 집으로 전화를 걸 때마다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씀이셨다. 비록 출가를 한 줄 알면서도 아들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하긴 부모와 자식이란 천륜인지라...

종교가 없는 집안에서 누나 둘에 막내로 태어난 내가 출가를 하였으니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아직 자식의 출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돌아올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머니, 훗김에 다시는 안보겠다고 외면해 버리시던 아버지...

삭발염의한 지금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항상 가슴을 저리게 한다. 하지만 스님이 된 지금에 저는 불경佛經을 통하여 우주와 인생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오직 불도를 닦아 공부를 성취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속의 효도는 물질적인 공양과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전부이지만 불법의 입장으로는 부모님의 사후에도 신식神識을 저 극락세계로 인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조사스님들은 “부모님이 윤회를 벗어나야만 자식의 효도가 비로소 성취된다. 부모리진구 父母離塵垢 자도방성취子道方成就”라고 하셨다. 진정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부모님의 윤회를 그냥 눈뜨고 볼 수 있단 말인가.

강원생활을 하면서 신심이 떨어지거나 나태해질 때마다 이 말은 언제나 무형의 채찍이 되어 사정없이 이 몸을 채찍질한다.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면서 항상 공덕을 부모님께 회향하고 이 인연으로 부모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은 항상 건강하고 편안하며 사바세계 인연이 다하는 순간 일체 병고액난 없이 극락왕생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한다. 定慧社



우리 집안에 불립문자不立文字란 말이 있다. 이는 정말 시원한 말이고, 보배 같은 말이다. 그러기에 이 말은 부처님 말씀을 무시한 것도, 경전을 폄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중생들이 이미지에 노예가 되고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병에 따른 약과 같은 것으로 그 참뜻은 부즉불리不即不離, 즉 진여한 무분별지를 강조한 것이요, 궁극에는 대비심을 들어내려는 것이다.

규봉스님은 자신의 저서 도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대에 의지할 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치를 자세히 보이신 것이요, 조사의 말씀은 당시의 근기를 해탈케 하기 위한 것이라서 뜻이 그 제자로 하여금 푹 푹 통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푹 푹 통한다는 것은 반드시 말을 잇는데 있는 까닭에, 언하言下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니, 자취가 분별에서 끊어지고, 이치가 그 심원心源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 자리는 본래 신해수증信解修證을 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성취되며, 경전과 어록을 익히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통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수도修道를 물으면 곧 무수無修라 답하고, 해탈을 물으면 도리어 ‘누가 그대를 속박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성불의 길을 물으면 ‘본래 범부가 없다.’고 말하고, 임종에 안심安心을 물으면 본래 무사本來無事라 하며, 혹은 모두 망녕이라 하고, 혹은 진眞이라 하나니, 그 핵심을 말한다면 다만 당시의 일을 따른 것이며, 당시의 근기에 응한 것이요, 무슨 따로 정한 법이 있어서 이름을 아록보리阿耨菩提라 부르는 것이 아니며, 따로 무슨 정한 행이 있어서 이름을 마하반야摩訶般若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情)이 집착하는 바가 없고, 뜻에 조작하는 바가 없으며, 분별이 생기지 않고 머무는 바가 없으면, 곧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해수증信解修證일 뿐이다.”

결국 우리에게 선禪이란 무엇일까?

누가 누구의 범맥을 이었고 무슨 종파를 세웠고 등등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가.’이며, 이것은 결국 현대를 사는 우리들 자신의 질문이기도 하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길을 간다. 불타佛陀는 불타답게, 달마는 달마답게, 혜능, 마조, 원효, 고호, 모짜르트도 모두 그들 자신의 삶을 그답게 살다 갔을 뿐이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정신적인 모범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완벽하게 그들 자신의 삶을 살다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의 위대한 모범을 남긴 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시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선禪은 경전이나 어록, 불타나 조사보다도 자기 자신의 실존實存을 묻게 되는 것이다.



어느 때 한 수행자가 백장스님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백장이 대답하기를 “그대는 누구입니까?”

선禪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교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선자禪者들이 주장했던 불교의 근본이념은 평상심으로, 이는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 한 일화가 있다.



중국 복주福州 고령사古靈寺에 계현戒賢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그 스님에게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신찬神贊이다. 신찬이 백장百丈스님의 회상에서 수도修道하고 돌아오자, 그 은사 계현이 묻기를 “네가 나를 떠나 밖에 나가서 얻은 것이 무엇이던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후 은사 계현은 제자 신찬에게 발일을 시켰다.

하루는 발일을 하고 돌아와 목욕을 하는데, 제자에게 등물을 치게 하였다. 제자 신찬이 등물을 치면서 “아! 좋은 법당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영험이 없군요.” 그 스승이 돌아보자 “부처가 비록 영험은 없지만 그러나 방광을 하군요.” 그 스승 계현이 다음 날 봉창 아래에서 경經을 보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벌이 봉창에 부딪치면서 나가자 하는 것을 보고, 신찬이 노래하기를 ‘空門으로 나가려하지 않고 봉창에 부딪치니 크게 어리석구나 백년을 그렇게 뚫으려(鑽古紙) 한들, 언제 머리가 나가지겠는가.’ 〈空門不肯出 投窓也大癡, 百年鑽古紙 何日出頭期〉 그 계송을 듣고 계현은 종을 쳐서 대중을 모으고, 제자 신찬을 시켜 설법을 하게 하였다 한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경전에 집착하고, 좌선에 집착하는 것은 선禪이 아니라는 것을, 경전을 배운다는 것은 곧 불성佛性を 깨닫지는 것이요, 선禪을 참구한다는 것은 바로 불성佛性を 드러내는 것이다. 불성佛性は 곧 대비심이니, 결국 불립문자不立文字란 바로 우리들의 본성인 대비심을 온전히 드러내라는 훌륭한 활구법문이었던 것이다. 定慧社



# 상좌부 불교의 발원지 **스리랑카**에서 **송광사**까지

송광사강원에 새로이 입방한 외국인 스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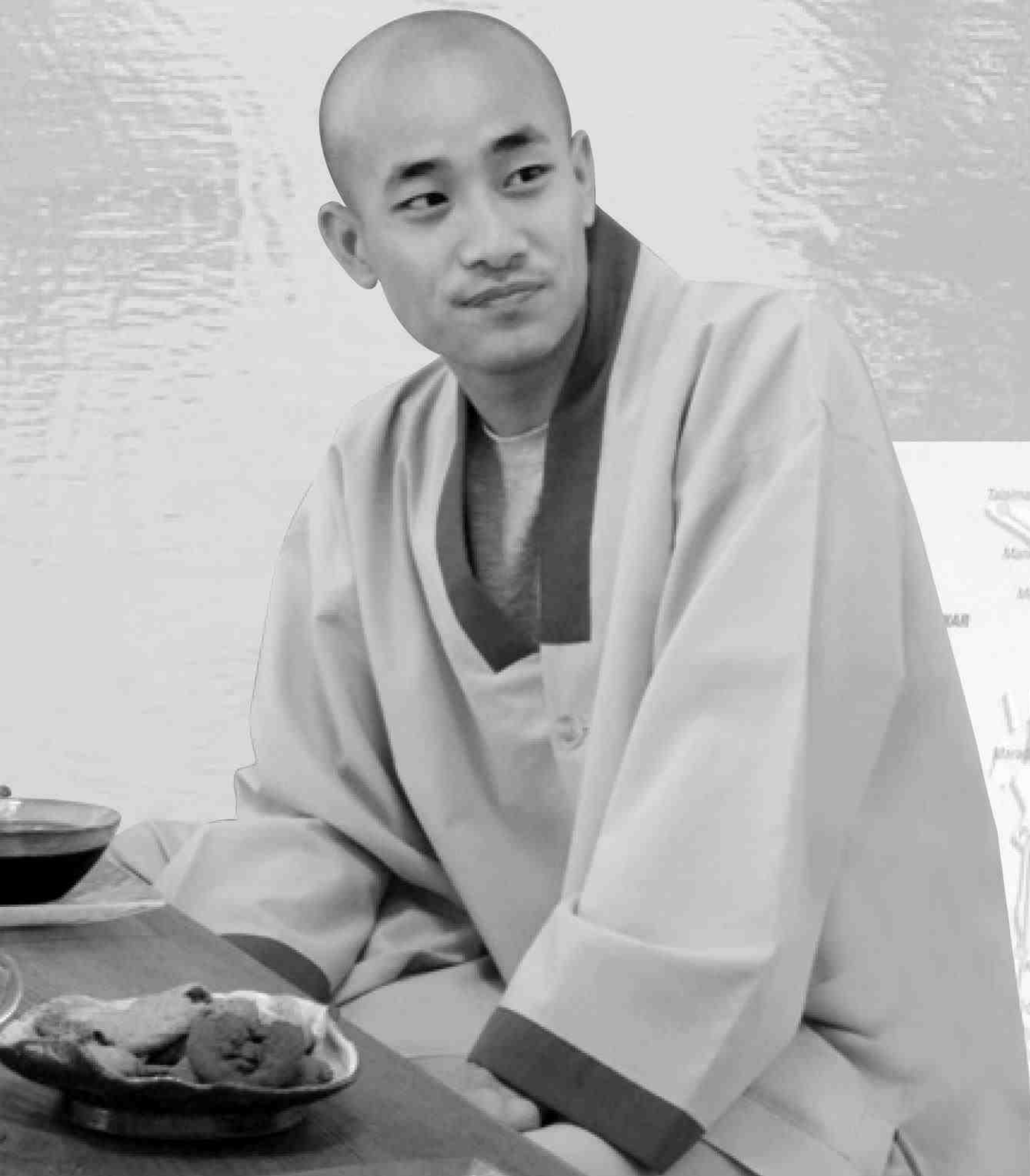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시리수마나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어  
현재 송광사강원 치문반에서 하안거를 나고 있는 성본스님이다.

얼핏 보아서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인지  
아직도 서투른 한국말이 어색하게 들릴 정도이다.

송광사강원에 입방하기 전 혼자서 책 한 권에 의지하여  
기본적인 한국어를 이수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서투른 송광사의 발우공양이 힘들기만 하다면서  
활짝 웃는 외국인 수행자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편집자 주〉





》》》 한국에서의 겪었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2004년에 은사스님께서 한국에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시키는데로 행자생활부터 했었지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어 책을 한 권 사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1년 동안 한 뒤에는 동국대를 2년간 다녀 졸업장을 받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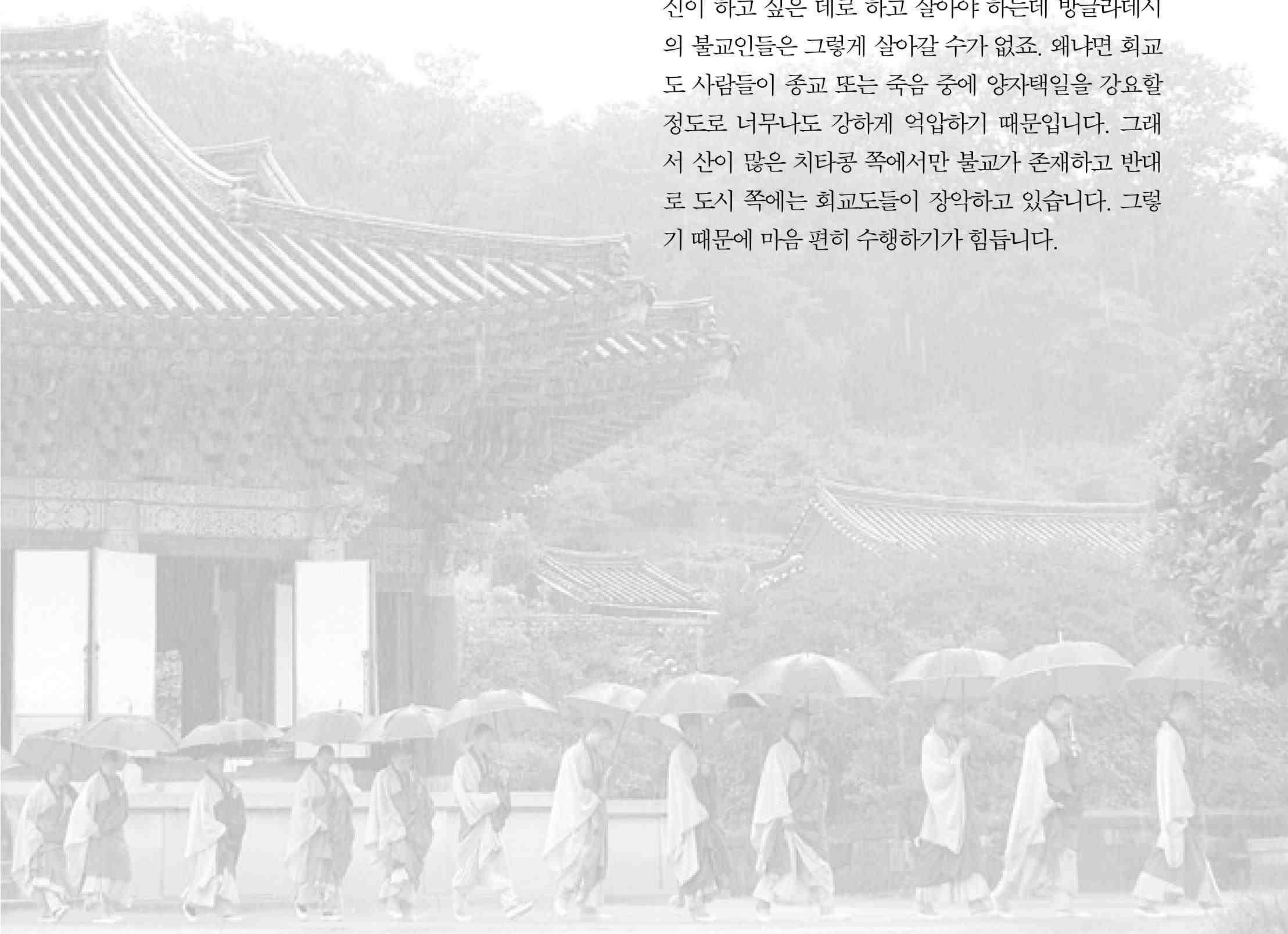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송광사에서 행자생활을 하기 위해 왔을 때 당시 대교반이었던 헤일스님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같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았었던 형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자를 비롯해서요.

》》》 은사스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되셨나요.

은사스님의 범명은 동주원명스님이십니다. 불교의 식집을 편찬하셨죠. 스님의 상좌스님 중에 96년에 계를 받은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스리랑카의 비구스님들 학교를 다니며 영어, 팔리어 등을 배웠어요. 그때 그 스님을 찾아온 은사스님께서 저를 보시고서는 후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스리랑카에 그 스님뿐만 아니라 한국스님들 많이 있어요. 비구스님들이 배우는 학교가 따로 있는데 예전에 그 학교에서 원경강사스님도 뵈는 적이 있어요.

》》》 방글라데시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스리랑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방글라데시에서는 불교가 힘이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데로 하고 살아야 하는데 방글라데시의 불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 회교도 사람들이 종교 또는 죽음 중에 양자택일을 강요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하게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이 많은 치타콩 쪽에서만 불교가 존재하고 반대로 도시 쪽에는 회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히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 》》》 스리랑카의 문화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적인 면을 보면 항상 스님 우선주의입니다. 버스나 전차를 타면 스님들 자리가 따로 있는데 한국의 노약자석과 같이 일반인들은 절대 앉지 않습니다. 길을 다녀도 길을 다 비켜주고 상점에서 스님이 줄을 서면 먼저 계산해주는 등 항상 우선으로 합니다.

스님들은 13살에서 20살까지의 아이들이 출가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 출가하는 분이 많으신데 스리랑카에는 20살이 넘어 출가하는 이는 드뭅니다.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따로 모여서 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어 절에 부족한 것 있으면 항상 보내줍니다. 한국에서는 보름법회와 초하루법회처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스리랑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법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신도님들은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흰색 옷인데 왜냐면 흰색이 가장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흰색은 불교도임을 상징합니다. 한국에서는 미니스커트 입고 절에 오기도 하는데 스리랑카에서는 절의 입구에서부터 신발은 벗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흰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재를 지내는 법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먼저 신도님이 주지스님께 와서 몇 분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후 해당 날짜에 직접 절에 와서 차로 스님들을 모시고 신도님 집으로 와서 행사를 합니다. 49재를 예를 들면 재 전날에 신도님이 절에 와서 스님들을 모시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법문을 한 뒤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사시공양까지 경전을 읽으며 재가 이루어집니다.

또 모든 공양이나 법회 전에는 신도 5계를 설합니다. 신도 5계를 설하고 스님들이 계송을 외며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난 뒤 한국에서 오관계를 하듯이 의식을 하고 공양을 합니다.

공양은 아침과 사시공양만 합니다. 숲속의 선원에서는 30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가족들이 돌아가며 공양을 올리는데 고기는 빼고 야채류만 드립니다. 반면 도시에서는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 않는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양을 올리신 분의 성의를 무

시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상좌부 불교인 태국을 보자면 탁발을 많이 하는데 개구리나 메뚜기 같은 것도 다 공양 받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 》》》 스리랑카 강원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강원의 생활은 총 7년 정규과정인데 수학, 영어, 불교,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등을 배웁니다. 간혹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가 같은 것인 줄 아시는데 엄연히 글씨가 다릅니다. 그 중에 특히 팔리어를 잘 배워야 하는데 경전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 팔리어로 된 경전을 아침저녁으로 (송광사에서 하는 것과 같이) 간경을 하는데 다 암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시험을 봅니다. 만약 떨어지면 1년 뒤에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문자가 팔리어는 41개, 산스크리트어는 34개인데 이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특히 팔리어는 적는 것이 어렵습니다. 붙여서 적기 때문에 읽기조차도 힘들어 합니다.

하루 일과는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예불한 뒤 7시 반에 공양하고 공부를 합니다. 11시 반에 점심공양하고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수업을 하며 6시에 청소하고 예불을 드린 뒤 7시부터 8시까지는 간경을 합니다. 그 뒤는 자율이구요. 방학기간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방학인데 스리랑카의 새해기념을 그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 8월쯤에 한 달, 또 3개월 있다가 한 달 그렇게 방학을 합니다. 스리랑카는 편합니다. 규율만 잘 지키면... 만약 규율을 어겼을 때는 강사스님들이 회의를 하여 참회를 주는데 주로 묵언을 시킵니다. 왜냐면 그들은 묵언을 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 》》》 스리랑카는 현재 분쟁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불교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내전은 70년대 부터 80년대가 제일 심했습니다. 타밀족이 스리랑카의 북부를 자기의 독립된 나라로 하기 위해서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에서 그럼 그냥 그렇게 하고 싸우지 말자고 했죠. 계율의 첫째가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타밀족이 사원을 공격하고 또 스님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보고만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타밀족의 종교와 같은 기독교 사람이었어요. 원래 스리랑카에서는 불교신자가 아니면 대통령이 못되는데 다른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도 다시 전쟁이 발발했었어요. 병사가 모자라니 월급을 올려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병사로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버렸죠. 스리랑카는 한국보다도 훨씬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정부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고,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는 이들을 미국에서 이민을 받아주고,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도 미국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 >>> 스리랑카에 불교가 어떻게 전래되었나요.

부처님께서 스리랑카에 3번 가셨습니다. 스리랑카에는 한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 같이 생겨 꼬리도 있고 힘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인도의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힌다 장로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247년 6월 보름날 당시 아누라다푸라에 왕도를 두고 있던 신할라 민족 왕 데바남피야 티사(DEVANAMPIYA TISSA)가 미힌탈레(MIHINTALE)에 사냥을 왔을 때 이곳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던 마힌다 장로와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마힌다 장로의 일행은 4명의 비구와 2명의 사미승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이곳 스리랑카에 가져온 불교는 상좌부 계통의 불교였습니다. 또 마힌다의 누이인 상가미타는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루었던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가지를 가지고 조금 늦게 스리랑카에 내도하여 당시 왕도였던 아누라다푸라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1인의 비구니와 함께 왔다고 하며 스리랑카의 왕비를 비롯한 이 섬의 많은 여성들을 비구니로 출가시켜 비구니 승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져온 보리수 나무가 세일론 불교진흥에 대단한 역할을 하여 불타성도의 상징으로써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신성시하였고 존경했습니다. 스리랑카에 전래된 상좌부 불교는 이후 태국 및 미얀마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또한 B.C. 80년경에는 그동안 구전으로 전래되어 왔던 붓다의 가르침을 세계 최초로 팔리어로 문자화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외국인 스님들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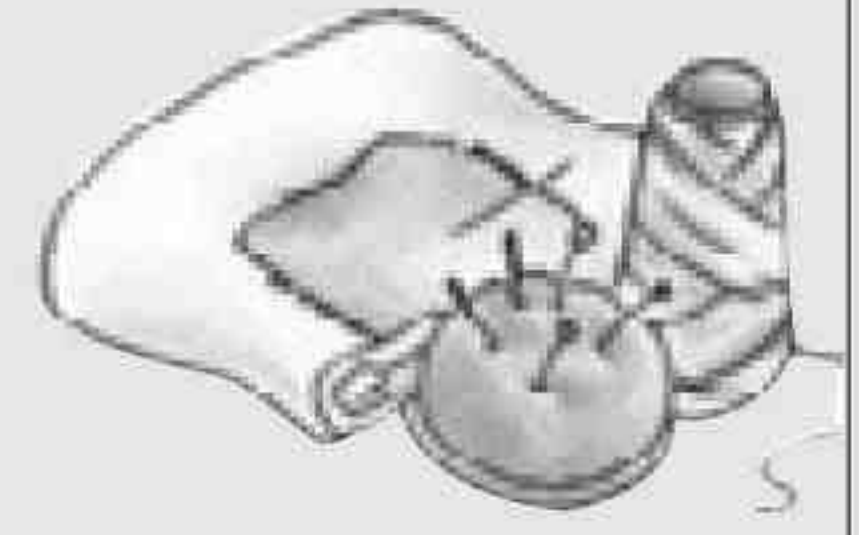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연 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불교 공부를 하다가 한국불교 또는 대승불교가 궁금해서 오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스님들과 연이 닿아 그냥 그렇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定慧社]

**성본스님**은 13세에 방글라데시에서 출가하여 스리랑카로 가서 시리수마나 승가대학을 졸업.  
2004년에 은사스님의 권유로 한국으로 유학. 동국대학교 졸업.  
조계산 송광사에서 행자생활을 하고 29회 행자교육원을 수료하여 사미계수지. 현재 송광사 강원 치문반에서 정진 중.



## 바느질

확연廓然 | 치문



출가하기 전에도 손재주가 그다지 좋지 못한 편이었다. 출가하기 전에는 손수 옷을 꿰매거나 양말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간단한 바느질조차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쩌다 구멍 난 옷이나 양말이 생기면 모친께서 손수 꿰매 주시곤 하셨다. 그리고 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출가하게 되면서 홀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빨래도 당연히 나의 몫이었고 구멍 난 양말 등을 기워서 사용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당연히 내가 스스로 해야만 했다. 송광사 강원에 들어와서는 아랫반 생활을 하다 보니 빨래도 자주 하지 않게 되었고, 구멍 난 양말도 기워 신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천성이 조금 게으른 편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더욱 빨래를 안 하게 되었다. 자연히 양말 하나를 신게 되면 오래 신게 되어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멍이 나면 우리 반에서 바느질을 잘하는 도반스님에게 부탁을 해서 손을 봤지만 계속해서 부탁하기 미안하여 관물함에 구멍 난 양말을 쭈셔 넣고 다시 양말을 오래 신게 되었다. 이런 나의 잘못된 습관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가 있었다.

송광사에 우리 은사 스님께서 존경하는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결제일이어서 인사를 드리러 갔었다. 스님은 벽면이 유리로 된 작은 방 한 칸에 머물고 계신 데 내가 문 앞에 갔지만 알아차리지 못하시고 작은 의자에 앉아서 바느질에 몰두하고 계셨다. 평상시에는 안경을 쓰지 않는 스님께서 안경을 쓰시고 몸소 자신의 장삼을 바느질로 손질하는 모습은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었고 게으른 나에게는 적지 않은 경책으로 다가왔다.

“확연스님 왔는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써야 바느질을 할 수 있네. 장삼이 조금 상해서 바느질 좀 하고 있었네. 차나 한 잔 하지.” 거의 환갑이 가까운 연세일 텐데도 안경까지 써가면서 몸소 장삼을 바느질 하시는데 20대 밖에 안 된 나는 양말에 난 구멍도 바느질하기 귀찮아서 손재주 없다는 핑계로 잘못된 습관을 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의 사건을 계기로 나는 이제 꼭 구멍 난 양말이 있으면 꼬박꼬박 바느질을 한다. 바느질한 곳이 서툴러서 터지고 올이 풀려도 계속해서 다시 꿰맨다. 바느질 잘하는 혜원스님도 옆에서 많이 가르쳐 줘서 이제는 바느질 후의 매듭 하는 것도 실력이 많이 늘었다. 어른 스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다. “스님이라면 자기 옷은 스스로 꿰맬 줄 알아야 한다네...”

이 말씀을 듣고 존경받는 어른 스님도 손수 바느질을 하시는데 갓 출가한데다 나이라도 어린 나는 바느질할 생각은 안 하고 미루기만 했으니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작은 것부터의 실천이 큰 행을 이룸을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작은 양말 한 켤레이지만 보시하신 신도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용한다면 구멍 난 양말이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나의 바느질 실력도 발전 좀 했으면 좋겠다. 혜원스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定慧社



## 신통한 새벽 목탁

향성香城 | 치문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절에는 정말 신통한 목탁이 있다. 다름이 아닌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이다. 어느 누가 치든, 잘 치든 못 치든 전혀 상관없이 정확히 새벽 2시 59분 45초에 작은 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게 올라가기를 3번을 반복해야 한다.

모든 절이 마찬가지로 송광사의 모든 대중은 이 도량석 목탁소리에 기상하여 예불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강원외의 큰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목탁이 울림과 동시에 찰중 소임을 맡아보는 소임자 스님이 죽비를 치고 바로 강원외의 전 학인 스님들 일제히 기상하여 새벽예불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나는 이 강원외의 사미반으로 시작해서 치문반 여름 안거까지 6개월 이상을 살면서 한 번도 죽비소리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죽비 치기 전 도량석 목탁소리 그것도 작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목탁소리에 항상 먼저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항상 신기한 목탁이라 한다.

아무리 피곤하여 곤히 잠들어 있다가도 또는 곁에서 같이 잠을 자는 도반들이 아무리 코를 심하게 골아도 잘 깨지 않다가 도량석 목탁소리만 나면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벌떡 일어난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신통한 것인지 강원외의 하판이라 항상 긴장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도 작은 목탁소리에 몸과 정신이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놀란다.

이 한 마음, 한 생각 달리하면 중생이 부처 되고 지옥이 천당 된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지금 이 몸과 정신의 노예가 아닌 당당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지금껏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끌려 살아오지 않았던가. 이제는 바꾸어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다면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신통방통한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처럼 미혹에 물들어 사는 중생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수행자 그런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앞산의 초여름 푸름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간직하면서 오늘 또한 열심히 생활하며 내일 새벽 또 그 시간에 꿀맛 같은 나의 단잠을 깨우는 신통하고 알미운 목탁소리를 또 기다려본다. **定慧社**



詩가 있는 풍경

## 동심

종안宗眼 | 사집

하얀 도화지엔 아무것도 없어라

산조차 구름조차 꾸며낸 얘기일 뿐

눈으로 보는 세상 꾸밈이 없고

입으로 하는 말은 거짓이 없네

한심한 이 사람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

옛 고향 앞뜰에 아이의 웃음소리 가득한데

누가 저 아이의 웃음소릴 흉내내리요



詩가 있는 풍경

## 빗물

자용慈容 | 시집

바람 끝에 떠밀려  
허공의 긴 적막을 가로질러  
인연을 찾아 내려앉는 구나.

싱그러이 냇따란 오동잎 끝에 맺혀 떨어지고  
기와 지붕 처마 끝에 물기둥이 되어 떠받치고  
예불 가는 초심자의 하얀 고무신 위에 떨어지고  
대웅전 앞 마당에는  
빗물천이 되어 춤추며 저 뜰의 끝 너머로 사라지네.

부처님 전을 바라보며  
젖은 흙 밭 사이로 한발 한발 내디디니  
빗물 속으로 사라져 버린 世俗의業이  
흙 밭에 찍힌 발자욱 속에 채워지는 구나.

영원한 불성을 구하는 마음의 여정에도...



나는 내 인생의 화가입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색을 결정하고 칠해왔으며 또 칠할 것입니다. 하지만 색을 칠할 때 대부분이 나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조건 지어진 것들에 의해 결정되어 색이 칠해지곤 했었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잔히 흐르는 냇물에 비친 형상의 그림자들이 파장에 의해 출렁이나 애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특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끝없는 노력에서만이 드러나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과 이야기를 나눈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잠한 수면 위에 누구도 예상 못할 만큼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태양이 되어 어둠에 지친 영혼을 위하여 태양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태양을 흠칠 만큼 용기가 있는 자. 오직 그림만을 통해 이야기한 예술가. 바로 빈센트 빌렘 반 고흐입니다. 그는 속박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현실 속의 고통을 통찰하려 했던 흔적들이 캔버스에 가득합니다. 그런 끊임없는 노력 끝에 자신 스스로 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들이 그를 그렇게 창작의 세계로 이끌어 들였고 다시 스스로의 길을 직접 선택하게 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빈센트 빌렘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지방의 그루트 준데르트에서 3대째 이어오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890년 7월 29일 자살을 함에 3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빈센트는 모든 이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소망을 위해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잘려진 귀, 창녀와의 삶, 그리고

자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일련의 사건들을 빈센트는 웃고 울며,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비극 속의 삶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극적인 생활 속으로 던져가면서까지 표현하려고 했던 그것을 작품들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빈센트는 목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목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신학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라켄의 전도사 양성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1878년 겨울, 스물다섯의 꿈에 가득찬 나이로 벨기에의 탄광촌인 보리나주로 떠납니다. 빈센트는 이곳에서 자신의 삶의 사명을 발견했고 그들의 삶과 하나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먼저 편안한 하숙집을 뛰쳐나와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며, 좋은 옷은 다른 이들에게 다주고서 스스로는 누더기를 걸치고 하루 종일 환자를 방문하며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광부들은 그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하였으나 브뤼셀 복음전도협회는 그의 이런 헌신적인 삶이 도를 넘는다고 여겨 여섯 달 후 그의 전도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당시 정황을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로 짐작케 하여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고통 받는 영혼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한다.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보리나주의 경험은 그의 작품 중 <집으로 돌아가는 광부의 아내>에 잘 나타납니다. 밑바닥 인생으로서의 삶. 그것은 광부의 아내들이 들고 있는 짐으로 충분히 그들의 운명이라는 짐의 무게를 동감할 수 있으며, 제일 앞에 가는 아내의 손에 들고 있는 등불과 뒤의 나무에 걸려있는 예수 십자가상은 빈센트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헌신적이었던 그에게 전도사 자격 박탈은 냉혹한 현실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빈센트는 편지에 이 시기를 표현하길 ‘털갈이의 계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새가 자신의 몸에 지녔던 깃털을 잃고 새로운 깃털을 얻는 과정, 이 힘겹고도 고통스러운 털갈이의 계절이 빈센트에게도 찾아 왔던 것입니다. 더 넓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광부의 아내

빈센트는 27살에 그림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표현하고 그림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란 걸 깨닫게 되어 뒤늦게나마 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젠가 만난 창녀 시엔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모델이 되어주길 원할 정도였습니다. 빈센트는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길 없는 가난과 불행으로 찢든 여인의 슬픔을 우리들의 슬픔처럼 가슴 뭉클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시엔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나,

동생이 보내주는 돈으로 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였고 시엔도 그의 호의에 달가워하지 않아 그러한 생활은 20개월을 넘지 못했습니다.

빈센트는 절망에 빠져 가족이 있는 누에넨으로 갔습니다. 그는 흥미있는 모든 것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 주로 그의 작품의 소재는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과 <낮을 든 농부>, <땅을 파는 농부>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의 내면은 소리칩니다.

“나는 내 그림이 민중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린다고 느낀다. 생생한 삶을 포착하기 위해 나는 가장 비천한 계급에 몰두해야 한다. 어떤 고통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진심으로 그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층 더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은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에 둘러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이 농부 가족의 식탁엔 자신들이 직접 일해서 거둔 감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며 먹음직스럽게 놓여있



습니다. 빈센트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들이 감자를 먹으려고 내미는 그 손으로 땅을 일구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손이야말로 정직한 삶의 손이라고.

빈센트는 진정으로 농부를 사랑했고 '농민의 화가'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인간이 먹는 한 끼의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한 끼를 위해 바쳐야 하는 노동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빈센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우선 이들 가족들을 한 명씩 따로따로 마흔 번도 넘게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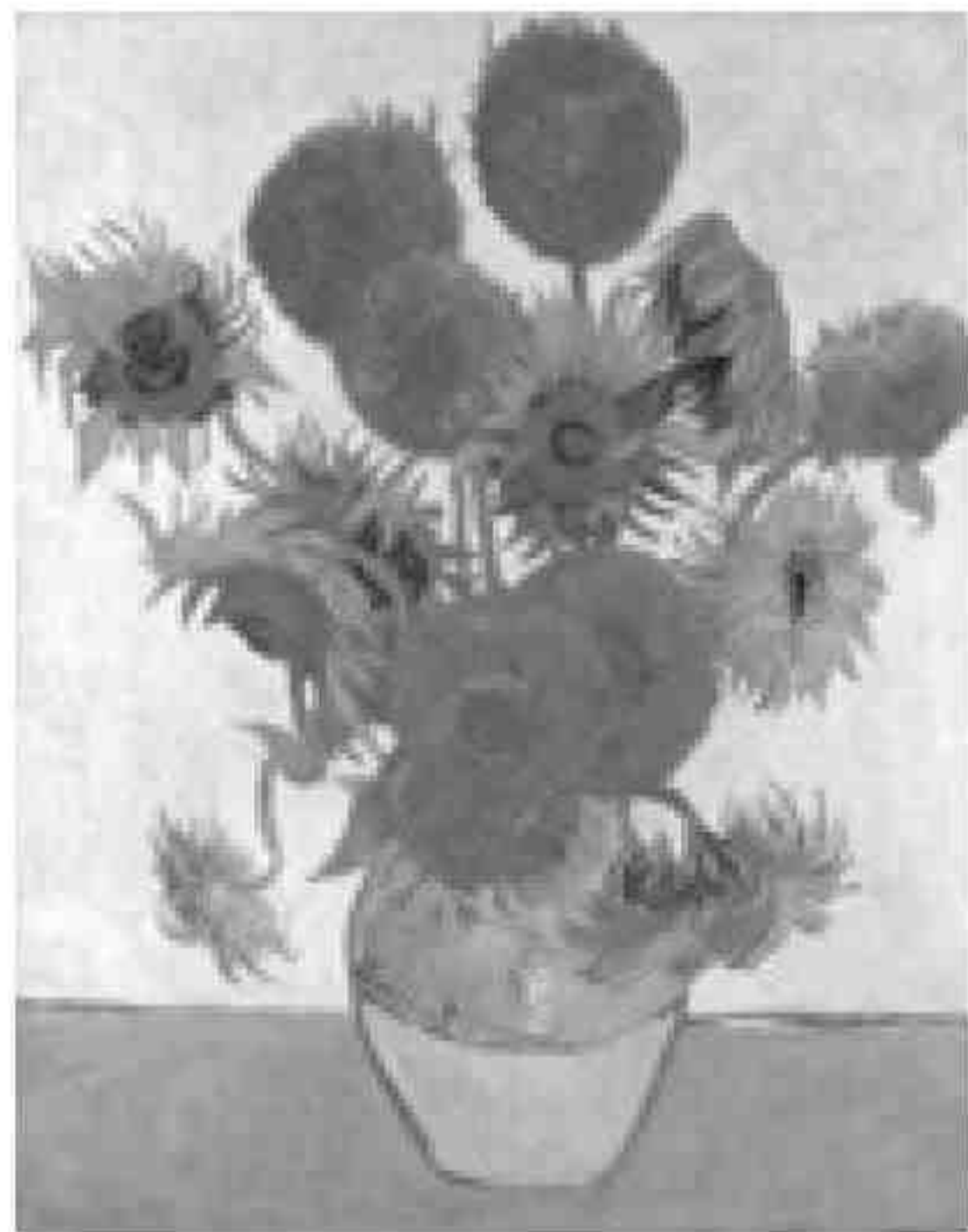
불빛이 퍼져 나오는 이 오두막집을 바라보느라 밤을 여러 날 지새운 뒤 온 정성을 기울여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려진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예쁘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밭에서 힘들게 일해 남보다 주름이 많이 잡히고 손도 마디가 툭툭 불거져 나온 역센 모습이지요. 그는 **"늙고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감탄했습니다. 빈센트의 손에 의해 어떠한 삶이 진실한 삶인지 비추고자 하였으며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손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빈센트는 해바라기를 통해 태양을 발견하였습니다. 태양을 발견함으로써 내 삶에 내재되어 있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를 타오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내 안에는 무엇인가 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는 끌 수 없는 불꽃이 있다. 이 불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해도 더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불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편지에 고백합니다. 내면에 타오르는 이 불꽃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빈센트는 노란색을 사랑의 색으로 표현할 정도로 무척 좋아 했습니다. '남프랑스의 아틀리에'를 장식하기 위해 해바라기를 그리게 됩니다. 작품에서 해바라기들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힘차게 뒤뜰립니다. 그의 열정적인 붓놀림이 꽃잎 하나하나에서 느껴집니다. 꽃잎을 보고 있으면 빈센트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의 가슴에서 폭발하는 불꽃의 광휘, 그것이 <해바라기>이며 내안에 있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숨 가쁜 손놀림과 거친 붓 터치, 두껍게 덧 바른 물감 속에서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영혼을 느껴 봅니다.

그의 걸작으로 꼽히는 해바라기 그림 한 점이 그의 사망 후 거의 100년이 지난 1987년 3월 30일, 런던의 크리스티 미술 경매시장에서 3629만 2500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액수는 미술 작품 판매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센트가 살아있을 때는 그 누구도 그의 그림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난에 시달리며 불안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테오가 보내주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림에 필요한 미술 도구를 사고 나면 식사할 돈도 변





해바라기

변하게 남지 않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에 네가 보내 준 돈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음식도 소화 시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상상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돈을 받았을 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그의 열의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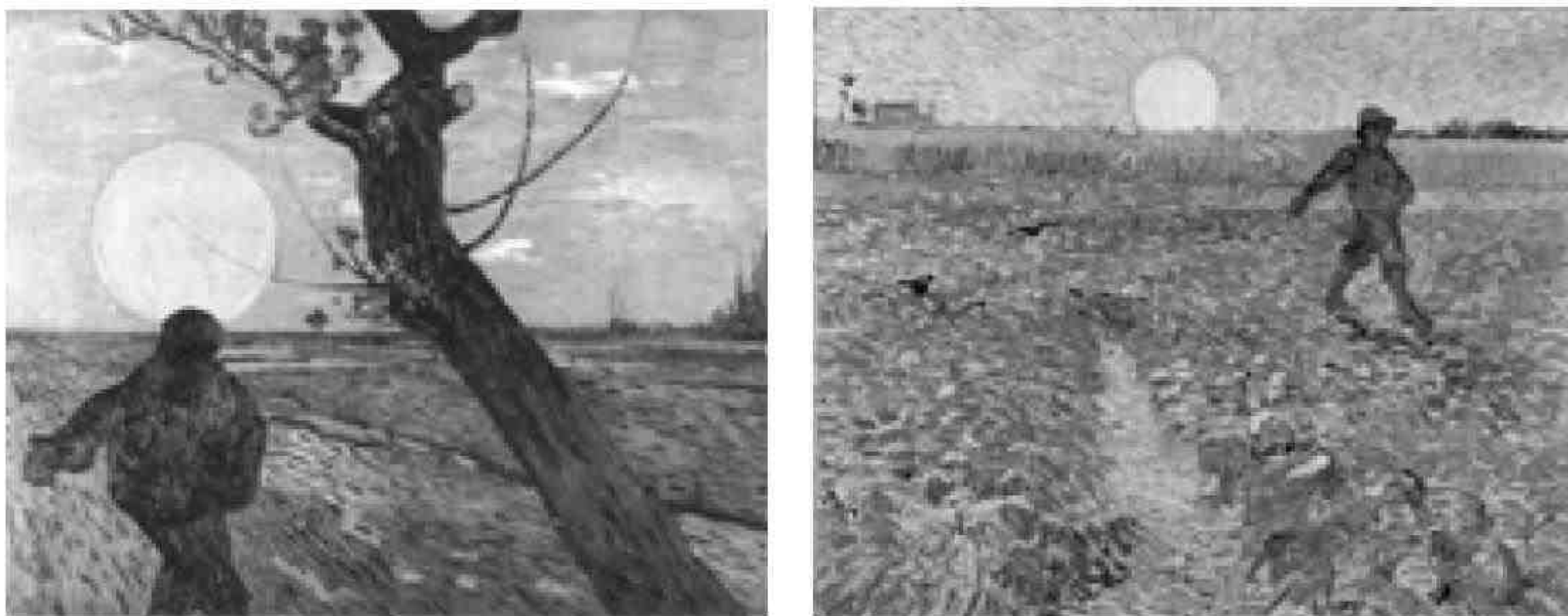
빈센트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의 우려로 인해 생레미 요양원으로 옮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센트는 가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발작은 며칠 만에 가라앉기도 하고, 또 몇 주씩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발작을 하는 동안에는 튜브 속의 물감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발작이 가라앉아 평온해지면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붓을 들 기력과 정신이 있는 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빈센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전처럼 자유롭지 못한 그는 창살 너머로 바라본 창밖의 경치를 그림니다.

빈센트는 바르비종이라는 시골에서 농촌 생활의 여러 모습을 진지한 자세로 그린 ‘장 프랑수아 밀레’ 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자신도 밀레처럼 ‘농민의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모사한 밀레의 작품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레미 요양원에서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무려 스물한 번 모사했습니다. 빈센트가 왜 이렇게 그 그림에 집착하였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가 농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편지에 “나는 인간의 역사가 밀의 역사와 같다고 절실하게 느낀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빵을 만들 수 있겠나?” 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통해 인간의 일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의 머릿속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을 거두듯이 영혼에 씨를 뿌리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의미는 이처럼 다양하고 깊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우리의 시선을 오랫동안 붙들어 두는 어떤 힘이 숨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저 너른 들판에 뿌리는 것은 단지 오곡의 씨앗만은 아닐 것입니다. 빈센트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의 씨앗, 가난한 농부들이 저 들판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혁명의 씨앗이 눈부신 대지 위에 쏟아져 내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 힘차게 사랑, 혁명의 씨앗을 당신의 손끝으로 뿌려 보세요. 빈센트가 바라는 바이며 그래야 그를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

발작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자 빈센트는 감시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양원 밖에서 그림을 그려도 좋다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가 가까운 들에서 찾은 그림의 소재는 무덤 주위에 심어 죽음을 상징한다는 실 편백나무였으며 그것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 <실 편백나무가 있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실 편백나무는 활활 타오르는 듯하고 하늘도 구름과 함께 소용돌이 칩니다. 그의 혼란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빠르고도 짧은 붓질 자국이 음악에서처럼 리듬감을 주고 매우 숨 가쁘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회오리바람이 모든 것을 그 안에 빨아들일 것처럼 두렵기까지 합니다. 병과 싸워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로 기력이 다할 때까지 그림을 그린 이 생레미 요양원에서의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 예술의 극치를 보여 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빈센트의 말로 바꾸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의 상황이 항상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당시 미술 평론가 알베르 오리에가 미술계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소개도 하였으며 빈센트는 드디어 자신의 그림을 이해한다는 기쁨에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자신과 이름이 같은 조카의 탄생도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방을 장식하기 위하여 선물할 그림을 그리는데, 이는 <꽃 핀 아몬드 나뭇가지>입니다. 아몬드 나뭇가지는 다른 나무에 반해 일찍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겨울에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를 그리며 갓 태어난 생명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작품에서 하늘은 소용돌이치지 않고, 나무줄기도 격렬하게 뒤틀리지 않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연한 상아색 꽃송이들이 가지 전체에 소담스럽게 달렸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꽃봉오리들도 보입니다. 세상의 햇빛을 처음 본 조카를 위해 어린 꽃망울을 정성스럽게 그리며 빈센트는 다시 한 번 생명의 고동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빈센트는 때론 거칠고 폭발적이거나 때론 섬세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아주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빈센트는 감옥 같다고 표현한 생레미 요양원을 떠나 오베르쉬르 우아즈로 갑니다. 이곳은 인상파 화가들이 모여 살며 풍경화를 그리는 경치가 좋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정신과 전문의사인 가세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편백나무가있는 별이 빛나는 밤



꽃 피아몬드 나무가지

빈센트는 가세 의사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느끼고 빨리 친해졌습니다. 물론 그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하였지요. 갈수록 동생 테오의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많이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빈센트는 그토록 친했던 가세 의사와도 말다툼을 벌입니다.

빈센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사인 가세가 광기의 증세를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오히려 악의적으로 병의 근원을 옹호하려 했고, 그 결과 천재성을 지닌 사람의 기질이랄 수 있는 반항적인 해명의 충동까지 뿌리째 근절시켰습니다. 머릿속에 영민한 아이디어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예비 되어있는 특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착란이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천재성을 어리석게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하였던 것입니다. 가세의 병에 대한 혐오는 경련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목에 못을 박는 듯한 엄청난 공포였다고 합니다. 빈센트는 호흡이 파열되어 숨 막힐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그려왔던 것이죠. 반 고흐는 것처럼 놀라운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의 마지막 그림으로 추측되는 작품이 여기에서 보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하늘은 폭풍이 불기 전처럼 어둡게 가라앉은 청색입니다. 하늘은 굵은 붓으로 두껍게 덧바른 선들이 사슬처럼 이어지면서 회오리바람이라도 부는 듯 어수선합니다. 누렇게 익은 밀도 바람에 휩쓸려 휘어져 있습

니다. 편지에 따르면 그는 이 그림에 슬픔과 극도의 외로움을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밀밭 속



으로 난 길은 몇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길마저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길은 저 아  
우성치는 하늘에 맞닿아 있고, 길과 하늘이 만나는 곳에서는 불길한 까마귀들은 마치 총이나 천  
둥소리를 듣고 놀란 듯이 밀밭 위를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선택한 뒤 그의 주머니에서 테오에게 쓴 부치지 않은 편지가 발견되었습니  
다. “나는 그림에 내 삶을 걸었건만 내 이성은 반쯤은 허물어졌다. 발걸음마저 휘청 거린다”는 생의 마지  
막 편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황금빛 밀밭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  
다. “그래, 나만의 일,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위험에 몰아넣었고, 그것 때문에 내 이성의 절반은 암흑 속에  
묻혔다. 그런데 너는 장사꾼에 속해 있는 것만 같지 않구나. 그리고 너는 아직도 진정한 인간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 진정한 네 자신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진정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자신의 죽음을 통  
해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반문하는 것입니다. 빈센트가 죽은 지 여섯 달 뒤인 1891년 1월 동  
생 테오도 정신질환으로 숨을 거둡니다. 빈센트와 테오는 비슷한 죽음으로 다시 맺어져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세상은 빈센트의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했습니다. 끊임없이 변  
해가는 모습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하지 않고 그것과 동일화 되어 그 가려져만 있던 우리의 깨  
어있는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성보다는  
확일성의 속으로 스며들어, 스스로 고정화시키고 소유하려던 종래의 사고방식은 빈센트에게  
는 지적인 모호함에 불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기독교인이건, 정신착란증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이러한 조건들은 그의 육신  
을 둘러싼 잠시 머물러 있는 이름일 뿐, 진실한 것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빈센트도 다  
른 모든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현실, 그러한 현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들어가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이 무엇일까?” 하고 항상 궁금해 하며 그는 더욱 더 그러한 현실이 지니고 있는 매혹적인 면이  
사고의 형태를 바꾸어 주는 뛰어난 언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센트는 예술사에 속해 있는 기록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존재라는 고통의  
현실 속에 등장했던 인간입니다. 안정과 잠이라는 마술에 걸려 영원히 지루한 목적만이 득세하  
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 이 세상에 홀연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위험수위’는 그곳에 도달  
한 사람뿐 아니라 찬란한 광휘, 폭발 그리고 유일한 수단인 힘이 자연 그대로의 인간과 어떤 연  
관성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 초상화를 그려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실패를 거치더라도 직접 초상화를  
그리시겠습니까! **定慧社**



#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실



## 3월 3일 강원, 울원 졸업식

송광사 강원 18회 졸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졸업하신 선배 스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수행정진에 향상일로하시길 기원합니다.



## 4월 11일 강주스님 특강

봄 산철부터의 첫 특강을 강주스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선시禪詩를 통해 선사들의 깨달음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의 공부 짓는 법을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4월 26일 소방훈련

일 년에 한번은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 올해도 변함없이 순천소방서에서 화재발생시 응급조치에 대해 교육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광사에 화재는 없다. 화재야 물렸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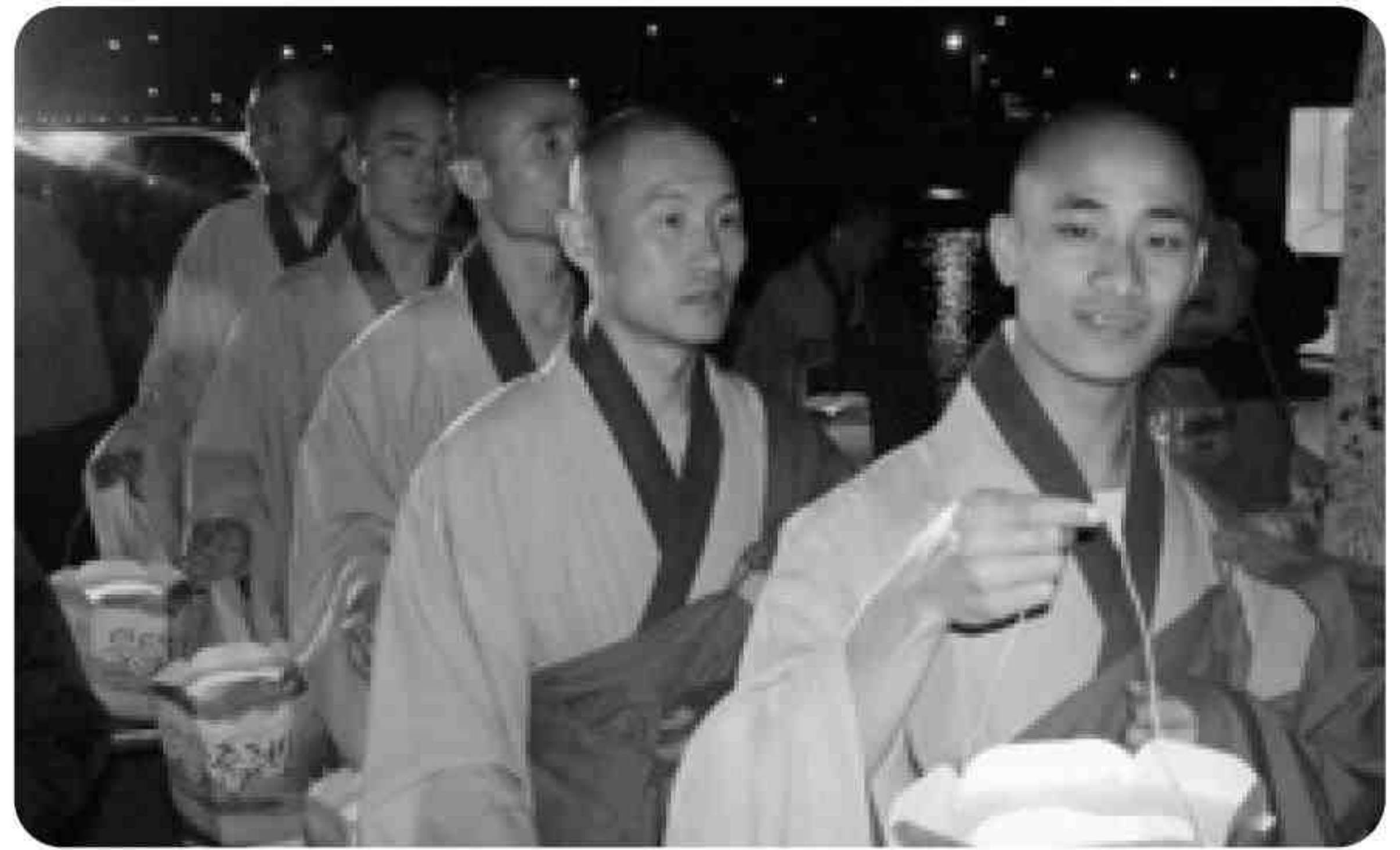
### 5월 12일~13일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식에 한결같은 불자님의 신심으로 대응 전을 꼭 메웠습니다. 청정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보살행 실천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 5월 24일 부처님 오신날

도솔천에서 아기부처님이 내려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연화세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어져 소원 가득 담아 올린 연등 하나에 우리도 부처님같이 닮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6월 2일 원경스님 특강

'만선동귀적萬善同歸的 입장에서 본 법화일승사상 法華一乘思想과 그 행법'에 대한 원경 강사스님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인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과 함께 법화사상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 6월 6~7일 발 윤력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막기 위하여 강원스님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정혜사 큰방 주위 및 도량내의 많은 곳에 새로이 발을 달았습니다.







### 6월 18일 대나무 운력

학인스님들이 하나가 되어 대나무를 나르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안거에는 이 대나무로 해청당 담장이 새롭게 단장되겠죠.



### 6월 22일 일각선사 추모제

선사께서 가신 길은 멀지만 남기신 가르침은 언제나 성성합니다. 스님의 은덕에 감사드리며 그 가르침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 6월 27일 감자 운력

여름이 무럭무럭 익어가듯 막 캐낸 감자알도 굵직합니다. 대중스님들의 분주한 손길로 어느새 감자밭에 감자 줄기만 무성합니다.



### 7월 5일 반결제 원족산행

구산선문이 처음으로 개창된 지리산 실상사와 동리산 태안사로 하안거 원족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치문반 스님들은 입방하고 나서 첫 번째 원족산행이라 다들 신이 났습니다.



##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강원에서는  
꽃꽂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 박채균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강원 두윤스님 061)755-5302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강원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출판물로서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35호의 발간과 함께 내부 사정상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안내 : 송광사 강원 편집실 ☎ 061)755-5302

우체국 온라인 : 500660-01-001029 예금주(송광사 정혜사)



##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방장스님·운주사·창원 길상사·대승사·증심사·만경사·무각사·법련사·봉은사 진화스님·백양사 재무스님, 교무스님·오성주유소·윤미숙님·이순득님·정련화님·묘덕화님

###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강주스님·율원장스님·미타사·신광사·신행선원·운주사·증심사·나주 심향사·송광사 원경 강사스님·보각스님·상원스님·혜산스님·금련화님·무진행님·보경화님·한병헌님

###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주지스님·서울 봉은사·서울 길상사·서울 전등사·서울 연화사·완주 송광사·광주 원각사·광주 증심사(카메라)·본연스님·진관스님·졸업생(익명)·홍지영님·허재인님·한동화님·양혜윤님·김현정님·김갑숙님·황영희님·강석창님·최은혜님·곽미숙님·윤미숙님·김영운님·강병균님·대휴사오인완님



###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 편집후기

● 태어나서 처음으로 長이라는 것을 맡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한 번 못해 보았는데 출가 해서 편집장을 맡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숙하고 모자란 저를 도와준 편집위원들과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신 분들, 묵묵히 뒤에서 도와준 도반스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송광사 강원의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소식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만큼 다음호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참 더웠던 편집실이었습니다. 첫 안거, 첫 편집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그저 따라 다니기만 했지만 이런 서툴렀던 기억들이 훗날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해년 하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이니 이 도리를 깨달아 생사대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도리를 알아내기 위해 9순 시한을 정해놓고  
한바탕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안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가자로서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미륵불 열반 때까지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련한 중생이 되려 합니까.  
복혜를 두루 갖춘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인의 기틀을 갖추고 있으니  
망상번뇌를 끊어 생사를 넘어서는 대자유를 반드시 누릴 것으로 믿습니다.





北七星 기울러져 새벽 먼동 밝아 오데

칠성단 초사불들도 거의 다 타 가물린다

스님은 念佛三昧中 날샌 줄도 모른다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